

# 2013 아동학대예방사업 우수사례집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 발간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을 통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향상 되었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특례법과 친권정지·제한 등의 법률 정비와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등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5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와 교육, 상담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의 기능회복과 재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최선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자신보다 우선시 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땀과 열정을 쏟아낸 상담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3. 아동학대예방사업 우수사례 및 수기 공모전'을 통해 상담원 및 심리치료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구어낸 현장의 이야기와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자원봉사자, 상담원 등 다양한 참여자로 이루어진 감동적인 수기를 발굴하여 본 사례집에 담았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사례집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예방사업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장 화 정**

##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 사명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 행동 강령

-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 실천 수칙

## I. 아동에 대한 실천

###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한다.

###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II. 가족에 대한 실천

###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 III. 사회에 대한 실천

###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IV. 전문가로서의 실천

#####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4. 옹호자 역할 수행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 목차

발간사 / 0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 04

### 우수사례부문

<b>01</b>	심리치료개입사례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	11
<b>02</b>	아동학대개입사례 즐거운 나의 집을 꿈꾸다!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31
<b>03</b>	아동학대개입사례 세자매의 다시 찾은 희망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	49
<b>04</b>	아동학대개입사례 삶의 희망을 갖게한 따스한 관심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63
<b>05</b>	아동학대개입사례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	75

- 06** 아동학대개입사례  
위기의 가족과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93
- 07** 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사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학대예방홍보 보조표지판설치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 105

수기부문

- 01** 너를 이해하니 너의 맘이 보이네!  
\_ 학대행위자(친모) ..... 112
- 02** 참 나쁘지만, 참 고마운 사람들  
\_ 학대행위자(외조모) ..... 118
- 03** 눈물  
\_ 조별 상담원(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122
- 04** 다시쓰는 희망  
\_ 피해아동 ..... 127
- 05** 나는 너의 그림자 되어 한 송이 꽃을 피우리라  
\_ 김철호 상담원(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132
- 06** 작은 추억들이 맺을 열매를 기대하며  
\_ 이창재 자원봉사자(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 139
- 07** 유진아 학교가자~  
\_ 김형민 상담원(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143

사례 01

심리치료  
개입

#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 요약

본 사례는 한명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개별심리치료, 학대 행위자치료, 모자치료 등 통합적 치료를 통해 아동과 모자와의 상호작용이 증진되고, 관계가 회복된 치료사례임.

학대행위자는 아동기 때부터 부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모에게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여 청년 때부터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근육과 시신경 마비의 신체화 증상을 가지고 있었음. 학대행위자는 유독 첫째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행해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신고하게 됨. 이에 6회기 부모개별치료, 9회기 학대행위자치료, 14회 모자치료, 아동은 38회 개별놀이치료를 실시하였음. 치료를 통해 학대행위자는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으며, 자녀와의 공감능력 증대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향상되었음. 이후 건강한 가족기능이 회복될 수 있었던 사례였음.

## 키워드

통합적치료, 개별 심리치료, 학대행위자 치료, 모자치료, 가족기능 회복

## I. 개요

아동	여아(10세)	학대행위자	친모(41세)
학 대 유 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치료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피해아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대행위자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모자치료 )		
심리치료기간(회기)	2011년 06월 11일 ~ 2012년 05월 25일 (총 29회기)		
주요치료개입방법	개별상담치료 / 학대행위자치료 / 모자치료		

## II. 치료개입 경위

본 사례는 2010년 11월 12일, 학대행위자에 의해 신체·정서학대로 신고 된 사례로, 신고 전날에 아동은 숙제를 하지 않고 잤으며, 아침에 기상이 어려웠음. 아동은 늦게 일어나 세수, 옷 갈이 입기, 밥 먹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20분 동안 앉아 있었음. 아침에 시부모가 방문했는데도 아동이 인사를 하지 않자 학대행위자는 시부모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아동의 뺨을 때리고, 추운날씨에도 맨발로 복도로 내보냈음. 아동이 계단 앞에 있자 분을 이기지 못해 아동을 계단으로 밀었음. 학대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고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치료를 통해 본인의 행동이 개선되기를 바램.

이에 학대행위자와 아동의 심리 행동적 특성 확인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해 2010년 11월 30일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6회기 부모개별치료, 8회 학대행위자 치료, 13회 모자치료를 진행 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아동도 38회 놀이치료를 실시하게 됨.

## III. 사정

### 1. 개인력

#### 1) 학대행위자(친모/3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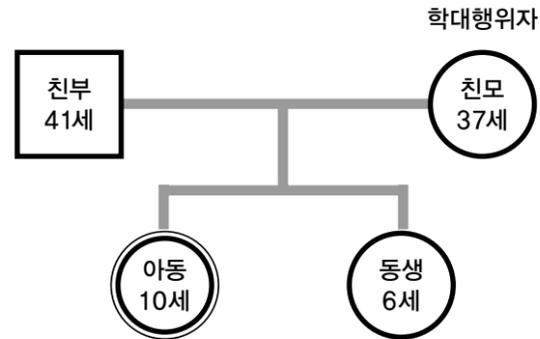
학대행위자는 남아로 태어나길 원하는 부모의 바람과 달리 둘째 딸로 태어나 출생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음. 어린 시절 학대행위자는 친부의 외도와 함께 친모가 친부에게 신체학대를 받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였음. 학대행위자는 이러한 친모를 대변해주면서 부에게 자주 맞았음. 친모는 강직한 성격과 생활고로 자녀에게 냉정하게 대했음. 마음 둘 곳이 없었던 학대행위자는 20살부터 항우울제를 복용하였으며 근육과 시신경이 마비되는 신체화 증상을 겪고 있었음. 학대행위자는 결혼 후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여러 이단종교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더욱 가정불화를 가져오게 되었음.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자녀들을 화장실에 가두고 자주 뺨을 때렸고 말을 잘 못하면 자로 입을 때렸음. 가위로 머리를 자르겠다고 위협을 가한 적도 있었으며 한번 때리면 금속매가 휘어질 정도로 때렸음. 또한 자녀가 유아기 때 자주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며, 아동의 머리를 쥐고 흔들고 엉덩이를 물어뜯는 등의 신체·정서학대를 함.

### 2. 가족력

#### 1) 가족관계

아동과의 관계	성별	연령	직업/학교	비고
부	남	41	교도관	동거
모	여	37	교사	학대행위자
아동	여	10	초등학생	피해아동
동생	여	6	유치원생	-

## 2) 가계도



### ○ 친부(41세)

성격은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성격임. 학대행위자에게 안정적인 남편 역할을 하지만 가끔 큰소리를 지르거나 급히 분노감을 표출하는 면이 있음. 학대행위자의 신체학대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학대행위자의 행동을 모방하여 자녀의 뺨을 때리는 신체학대를 가함. 특히 아동이 떼를 쓰거나 고집을 피운 것을 참지 못해 사이가 원만하지 않음.

### ○ 아동(10세)

초등학교 5학년. 유아기부터 모세기관지염으로 잦은 병원 진료를 받음. 행동과 외부의 상황에 반응이 느림.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동생과 타협이 되지 않아 다툼이 잦음. 싸움 중 동생을 발로 밟아 얼굴에 피멍이 들게도 함. 모는 이단의 사상 때문에 아동을 엄하게 대하고, 생일 등을 챙겨주지 않았음. 아동은 모와 부에 대한 애정 욕구가 강하나 내적인 정서와 욕구를 적절하게 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 동생(6세)

유치원생. 눈치가 빠르며, 자기 것을 잘 챙기고 야무진 성격임. 부모에게 애교가 많고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유치원에서 모범생으로 생활함. 아동과 부모와는 사이가 좋지만 떼를 많이 씀. 승부욕이 강해 언니와 싸움에서 이겨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함.

## 3. 심리평가사정

### 1) 검사종류

- MMPI(다면적 인성검사)
- SCT(문장완성도 검사-성인용)

### 2) 검사결과

자아강도가 강하고 애정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바 자기애성 성격경향이 있다고 판단됨. 타인의 관심을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좌절 시 적개심이 강하게 생겨나고 내적인 분노를 효율적으로 표출하지 못하다가 충동적으로 공격적인 형태로 표출할 것으로 판단됨. SCT에서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 죽었으면 좋겠다.”, “나의 어머니는 / 불쌍한 여자다.”라고 하는 등 원가족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적절한 부모상이나 양육자상이 부재해 보임. 이에 부모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링이 형성되지 않아 아동양육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됨. 대인관계에 유능하고 사교성이 좋으나 다소 피상적일 가능성이 있고 충족되지 않은 애정과 관심의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됨.

타인의 평가에 과민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자신의 문제나 내적 사유에 대한 통찰력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됨.

## IV. 치료목표와 계획

### 1. 치료목표

#### 1) 개별치료를 통해 나를 이해하여 재학대를 예방한다

- 하위목표
1. 원가족 이해를 통해 현재 나를 이해한다.
  2. 분노감 인지 및 적절한 분노감 표현

## 2) 학대행위자 치료를 통해 양육태도의 변화를 도모한다

- 하위목표 1. 집단원의 지지를 받아 나와 가족 구성원의 감정을 이해하기  
2. 양육기술의 습득

## 3) 모자치료를 통해 아동과 친근한 관계 맺기

- 하위목표 1. 모자치료를 통해 아동과의 스킨십 유도과 친근감을 유발시키는 놀이 시간 제공  
2. 대화를 통한 서로의 마음 반영, 공감해주기

## 2. 치료계획

### 1) 초기(부모개별치료: 6회)

개별심리상담을 통해 원가족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함. 원가족의 경험이 여전히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아 현재 학대행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살펴보고 도록 함.

화에 대한 발생요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자신의 분노에 대한 감지와 원인을 파악하도록 함. 자신에게 맞는 분노 대처 방법을 모색하도록 안내하여 분노감을 조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고 적절한 분노감을 표출하도록 함.

### 2) 중기(학대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9회)

학대행위자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사와 집단원의 공감과 지지를 받아 안전하게 나를 표현하며 타인에게 수용 받는 경험을 함. 이를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수용능력과 공감능력을 확대시켜감.

또한 아동과의 실질적인 대화법을 집단원과 역할을 나눠 실습해봄으로 양육 태도에 변화를 주며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을 상승시키도록 도움.

### 3) 후기(모자치료: 13회기)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능력을 키우고 아동과 친근한 관계를 맺도록 함. 아동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도하고 아동과 놀이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마련함으로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 모자치료를 통해 그동안 습득한 감정읽기, 공감해주기, 안전하게 분노감 표현하기를 치료 중에 실습하면서 실패 시 치료사와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료 종결 후에 아동과의 문제를 해결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

## V. 치료개입과정

### 1. 부모개별 치료 (1회~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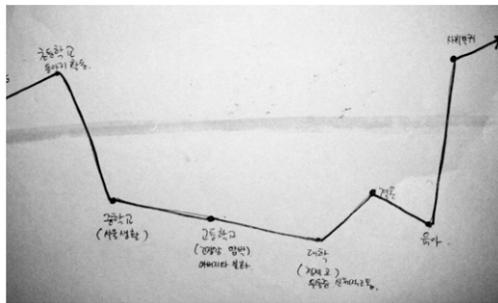
- 치료목표: 개별치료를 통해 나를 이해하여 재학대를 예방한다

(원가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나를 이해/ 적절한 분노감 표현법을 통해 재학대 예방)

- 치료내용: 1회~3회(원가족에 대한 이해)

- 1회기에는 학대행위자(‘이하 친모라 칭함’)는 회기에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상담에 임함. 친모의 문제는 아동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 증오심만 쌓이고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함. 아동의 행동 중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아동의 느린점이라고 함. 아동의 느린 행동으로 인해 친모가 아동에게 느껴지는 불안감은 아동이 공부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함. 친모는 어렸을 때 친정으로 부터 공부를 잘해야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아동에게 전이 시켰음을 깨달음. 이제는 아동의 느린 성향을 인정해야겠다고 함. 치료사는 아동과 모의 성격이 다름을 알려드리고 MBTI 검사 결과를 설명해드림. 친모는 ISTJ 형으로 조직적, 체계적인 성격과 아동은 INFP형으로 창의적이고 모험심이 있는 성격으로 두 성격상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림. 친모는 자신과 다른 성격의 아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 2회기에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를 하며 친모의 유년 시절부터 현재 까지 삶을 그래프로 표현함. 중학교 이후부터 가정불화에 대한 긴장감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으며 대학생 때부터 우울증과 신체화 증상으로 힘들었던 점을 하강 곡선으로 표현함. 인생그래프를 그리는데 중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생각난다면서 울음. 그러나 지금 아픈 과거를 치료하고 있어 희망이 보인다고 하며 현재와 미래를 상승곡선으로 표현. 현재는 친모와 아동의 분노감과 불안감을 치료를 통해 회복되는 것이 목표이며 노후에는 남편과 사회봉사를 하고 싶다고 함.



〈부모개별치료 2회기〉  
'나의 인생의 그래프'

- 3회기는 음악을 듣고 명상 시간을 가진 후 '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일' 을 그림으로 표현해 봄. 행위자는 구석에서 쪼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와(본인) 아이를 때리는 부, 그 옆에는 모가 울고 있는 장면을 그림. 친모는 어두운 과거의 잊어지지 않는 장면이라며 울고 있는 아이는 외로웠다고 함. 그림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보라고 하니 부가 아이를 안아 주는 그림으로 바꿈. 친모는 아픈 기억의 장면이 따뜻한 장면으로 바뀔 수 있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함.

○ 치료내용: 4회~5회(분노감 원인과 적절한 분노감 표현방법 모색)

- 4회기는 친모가 가장 분노감을 느낄 때는 아동이 느리게 행동 할 때와, 동생과 싸울 때라고 함. 분노감의 원인을 살펴보니 친모는 아동이 잘못 클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임을 깨닫게 됨. 친모는 분노감이 상승될 때 밖에 나가 산책을 하면서 감정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선택함. 산책 시 아동에게 친모의 기분을 알려주고 친모가 돌아오는 시간을 정해 아동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

- 5회기에서 일주일 동안 아동이 동생과 싸움에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치료사와 나눴던 패턴대로 행했더니 화가 가라앉았다고 함. 친모는 약속한 시간에 집에 돌아오니 아동은 동생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모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함. 친모는 화

가 났을 때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서 아동 양육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함.

○ 치료내용: 6회(나에 대한 이해 - 나의 꿈)

- 친모는 아동과 사이를 개선되고 싶은 욕구를 밝히면서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에 1년 휴직계를 낸다고 함. 치료사는 친모의 쉽지 않은 결단과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에 격려를 해줌. 친모의 꿈은 국제 변호사이지만 남편과 자녀를 양육하면서 좌절이 되었다고 함. 모의 친구들은 국제변호사로 있는데 지금 자신이 학교 교사로 있는 것이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인 것 같다고 함. 친모는 현재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동을 원망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함. 치료사와 대화중에 모는 꿈이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며 죄책감을 느끼거나 억압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지금 당장은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기는 어렵지만 인터넷 무료강의 등을 활용하여 외국어를 준비하기로 함.

2.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1회~9회)

○ 개입목표: 학대행위자 치료를 통해 양육태도의 변화를 도모한다.

(집단원의 지지를 받아 나와 가족 구성원의 감정을 이해/양육기술의 습득)

○ 치료내용: 1회~3회(집단원들에게 나에 대해 소개하며 지지받기)

- 1회기는 5명의 집단원으로 이뤄짐. 서로의 닉네임을 만들어 소개함. 친모는 두 자녀 이름의 끝자를 붙여 '주주맘' 이라고 함.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구슬 주' 자 돌림을 썼다고 함. 다른 집단원이 자신의 이름에 '구슬 주' 가 들어가서 이름을 불러지는 것이 싫다고 하니 친모는 '구슬 주' 는 여러 사람 중에 어질고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녔다면 집단원의 이름은 예쁘고 소중한 뜻이라고 해석 해줌. 친모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 하면서 딸이라서 집안의 돌림자를 받지 못했고 남자 이름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집단원에게 소개하니 눈물이 나고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제는 이름을 좋아하려고 한다며 울먹임.

- 2회기는 사진의 표정에서 나타난 감정을 살펴본 후 조별 작업으로 긍정정 단어 분류를 해봄. 마음에 드는 사진과 감정단어를 골라 발표함. 친모는 울면서 앉아 있는 아동 사진과 '비참함' 단어를 선택.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혼났을 때 아무도 자신에게 '괜찮다'고 위로해주지 않아서 비참한 기분이었다고 함. 두 번째로 위로를 받지 못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 근심하는 사진을 고름. 사진을 다시 고쳐보라고 하니 모는 자신을 위로하고 싶으면서 누군가 옆에 와서 안아주는 그림으로 바꿈. 또한 근심하는 표정이 언젠가 웃는 얼굴로 바뀔 거라면서 웃는 모습으로 바꿈.



〈학대행위자치료 2회기〉

1. 감정사진 고르기에서 부모에게 혼나 울고 있는 아동을 고름. 감정단어는 '비참함'을 선택.
2. 자녀양육에 근심하는 사진을 고름.

- 3회기는 나를 색종이로 표현함. 친모는 다른 집단원의 발표 중 아무 준비 없이 엄마가 되어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말에 동감이 간다며 울음을 참지 못함. 친모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본인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함. 집단원들은 친모 말에 동감이 간다고 함. 친모는 애정 결핍자이며 겉으로 표시가 나지는 않지만 안에는 눈물과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함. 친모는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함.



〈학대행위자치료 3회기〉

색종이로 나에 대해 표현. 마음 속에는 눈물과 상처가 있으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함.

○ 치료내용: 4회기~5회기 (가족 구성원의 감정을 존중하며 이해하기)

- 4회기에 역할 바꿔보기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이해함. 친모는 아동역할, 집단원은 친모의 역할을 함. 친모는 아동의 입장이 되어보니 주위 사람들이 명령을 하고 혼을 낼 때 아동의 기분과 느리게 행동하며 반항하는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 함.
- 5회기는 가족 가계도를 통해 나와 가족 간의 관계를 파악함

○ 치료내용: 6회기~9회기 (양육기술 습득)

- I-Message(나메세지)의 대화법을 익히고 여러 상황에 맞춰 집단원 끼리 역할을 정해 실습 해 봄.
- 발달연령에 따른 특성 공부 후 화초에 친모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달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숙제를 내줌.
- 종결 회기는 가족 모두를 초청하여 동영상으로 그동안 가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고 가족 앞에서 수료장 수여식을 하여 축하를 받음. 또한 가족과 함께 케이크 만드는 시간과 식사시간을 가짐.

### 3. 모자치료(1회~14회)

○ 개입목표: 아동과 친근한 관계 맺기

(모자치료 통해 아동과 스킨십 유도과 친근감을 유발시키는 놀이 시간 제공 / 대화를 통한 서로의 마음 반영, 공감해주기)

○ 치료내용: 1회~4회(모자간 친근감 형성하기)

- 준비 작업으로 모와 친근한 관계를 위해 안마해주기, 눈 쳐다보기, 심장소리 듣기 등을 함. 아동은 친모를 꼭 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함. 유동성 있는 재료인 석고, 초코렛 등을 통해 이완작업을 함.
- 1회기는 자유놀이에서 아동이 양초그리기를 선택하니 친모도 동의함. 아동은 친모에게 애정을 과하게 표현하며 ‘엄마 사랑해요’, ‘엄마 행복하세요’ 등의 글을 작품에 쓰며 모의 반응을 살핌. 2회기에 가벼운 스킨십을 이용한 준비 작업을 하니 친모는 “아동에 대한 사랑이 새록새록 생기는 것 같다”고 함. 가정에서도 하루에 한번 스킨십을 하도록 숙제를 내줌.
- 3회기는 서로의 손을 로션으로 마사지를 해준 후 ‘손 석고 뜨기’를 함. 느낌 나누기에서 친모는 아동이 손을 만져 주는 것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랐다고 하며 “너무 따뜻하다”고 함.
- 1회기~3회기 동안 서로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고 서로 잘 보이려고 했던 태도에서 4회기부터는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함. 4회기 ‘초코렛 만들기’에서 서로가 원하는 모양이 달라서 모양틀 분배에 시간이 걸림. 초코렛 원료에 제한이 있으니 아동은 재료 사용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해서 떼를 쓰며 타협이 어려웠음. 친모는 치료 종료 후 아동의 행동에 분노감을 나타내며 아동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또래사이에서도 미움을 받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함.

○ 치료내용: 5회~7회(합동작품을 통해 의견 조율과 협력하는 법 배우기)

- 5회기는 전지에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꾸밈. 자신이 그린 것은 다른 사람이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구역을 나눠 아동은 ‘동물마을’ 친모는 ‘숲속마을’을 그림. 작품을 완성한 후 소감을 물으니 아동은 “동물을 많이 그리는 것을 친모가 반대할 것 같았는데 허락해줘서 좋았다”고 하고, 친모는 “아동이 화지의 공간을 양보 해주어서 고맙웠으나 정작 원하는 마을을 그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함. 치료사는 협동작품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가 아니지만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함.
- 6회기는 집모형과 미니큐어를 이용하여 ‘집안 꾸미기’를 함. 협동작품을 하는데 어려움이 예

상되어 원하는 장소에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도록 하는 개별작업과 나머지는 공간은 협동작품으로 하도록 함. 아동은 모의 동의를 얻어 마당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아를 꾸밈. 친모는 2층 테라스에 흔들의자와 수영장을 배치하고 쉬고 있는 친모를 꾸미고 싶으면서 아동에게 동의를 구하니 아동은 화를 내며 2층은 침대를 꾸며야 한다고 함. 친모는 수영장을 목욕통으로 대치하였으나 아동은 허락하지 않음. 친모가 아동에게 서운한 감정에 대해 말을 하니 아동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

○ 치료내용: 8회~ 11회 (대화를 통한 서로의 마음 반영, 공감해주기)

- 8회기부터 아동과 친모의 대화가 시도됨. 아동은 자신의 비밀이야기를 친모에게 이야기하여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상의하며 모의 tip을 받음.
- 9회기에는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반영과 공감에 대한 배운 것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짐. 친모는 아동이 아침에 짜증을 부려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함. 아동은 짜증을 부리면 친모가 반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함. 친모는 아동이 이해받고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던 속마음을 파악함. 아동이 짜증을 내면 마음을 읽어줄 생각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동에게 사과를 함.
- 10회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선물을 주기로 함. 아동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액세서리를, 친모는 아동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액자를 만들어 달라고 함. 아동은 친모가 만들어 준 핀이 마음에 든다면서 머리에 꽂음.



〈모자치료 10회기〉

서로에게 원하는 것 선물해주기  
아동은 특별한 액세서리, 친모는 액자를 원함

- 11회기는 친모와 동생과 함께 게임을 하며 가족 간의 마음을 읽어주며 반영해주는 작업을 함. 동생과 언니의 입장에 대해 서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

○ 12회기~14회기(회기정리-서로 얼굴 그리고 장점말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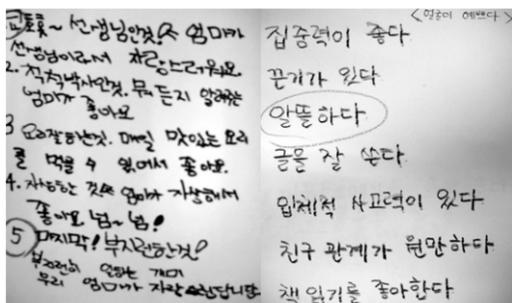
- 13회기 서로의 얼굴을 살펴보며 특징을 찾음. OHP필름지를 얼굴에 대고 상대방의 얼굴을 그림. 생각보다 잘 그려지지 않고 우습게 났다면서 웃음. 그림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모는 강직해 보이는 눈썹이고, 아동은 하나하나 그린 치아가 마음에 든다고 함. 각자 상대방의 그림에 싸인을 하여 방에 걸어둔다고 함.



<모자치료 13회기>

서로의 얼굴을 관찰하며 OHP필름지를 얼굴에 대고 그리기를 함.

- 14회기에 상대방의 장점 5가지를 편지에 작성함. 아동은 '개미같이 부지런한 모가 자랑스럽다', '선생님이라서 자랑스럽다', '엄마가 자상해서 좋아요 넘~ 넘!' 이라고 씀. 모는 아동의 집중력과 알뜰함, 끈기 등이 장점이라고 함. 친모는 아동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랐으며 의외라며 웃음. 치료를 마무리 하면서 친모는 '이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면서 치료사 도움을 받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혼자 일어 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함.



<모자치료 14회기>

마지막 회기로 서로 칭찬하기 편지를 씀.

## Ⅵ. 평가

### 1. 분석 및 평가

#### 1) MMPI와 SCT 사전·사후 검사

##### (1) MMPI 사전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T	62	43	78	65	45	61	65	48	60	51	46	36	31

##### (2) MMPI 사후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 - 사후검사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T	53	39	73	51	49	56	59	49	43	53	48	38	35

사전검사에서 친모는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이나 결점에 대해서 부정·부인하며 방어적인 태도로 검사에 임하였음.(사전검사 MMPI-2 K=78T). 그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임상 척도들이 상승해있음. 에너지 수준이 저조한 친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신체화나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 표출했던 것으로 여겨짐(사전검사 MMPI-2 Hs=65T, Pd=65T). 친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충동적이고 비 일관적으로 양육·훈육하며 병리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했던 것으로 생각됨.

사후검사에서 친모는 사전 검사와 달리 임상척도들이 모두 하강해있는 점을 보아 스트레스 수준이나 스트레스 대처법이 좋아진 것으로 보임.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여겨짐(사후검사 MMPI-2 Hs=51T, Pd=59T). 가정에 대한 보고 또한 안정적으로 표현

함(사전 SCT “우리 가족은 나에게/ 많은 것을 바란다”- 사후 SCT “우리 가족은 나에게(를)/ 사랑한다”). 그러나 에너지 수준이 저하되어 있고 쉽게 피로감이나 짜증을 경험하기 쉬워 보임. 이와 관련하여 피검자가 스트레스상황에서 충동적인 대처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음(사후검사 MMPI-2 Ma=38T).

**2) 일반 정신건강 척도,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 부담, 양육 효능감, 양육행동 사전·사후검사**

척도	사전	사후	변동
일반 정신건강 척도	30	15	+15
부모 양육태도 간편	15	29	+14
부모 양육 부담 간편	50	35	-15
양육 효능감	35	52	+17
양육 행동	98	110	+12

일반 정신 건강 척도검사에서 사전점수는 30점, 사후점수는 정상인과 정신건강 취약한 군을 나누는 절단점인 16점 보다 낮은 점수임. 이는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사전검사 보다는 사후검사에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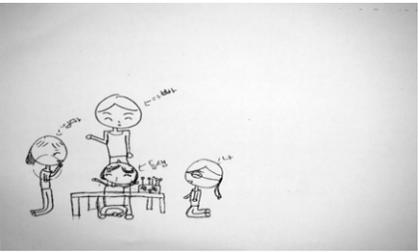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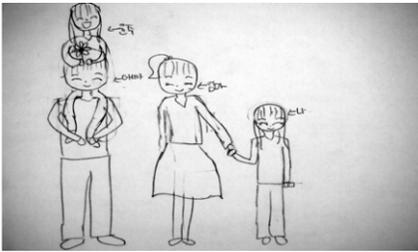
부모 양육태도 간편 검사에서는 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14점 상승되어 나타남. 이는 아동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냄.

부모 양육 부담감 간편 검사는 사전점수보다 사후점수가 15점 하강되어 나타나 아동 양육 시 느껴지는 부담감은 감소되었음을 보여줌.

양육 효능감 검사는 사전점수 보다 사후점수가 17점 상승되어 나타나 가장 높은 점수의 변화를 보여주었음. 이는 부모 역할의 자신감 상승과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양육 행동 검사는 사전점수보다 사후 점수가 12점 상승됨. 이는 모의 양육행동에서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적인 통제, 아동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양육행동이 상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사전·사후검사 중 가장 적은 변동을 보임으로 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의 자신감 등은 상승되었지만 실질적인 양육행동의 변화는 아직 적은 것으로 추측됨.

**3) 아동의 KFD(동적가족화)사전·사후검사**

척도	사전	사후
KFD		
반응	동생의 생일에 가족들이 축하파티를 하고 있음	가족이 함께 공원을 가고 있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모와 아동의 거리가 가장 멀게 표현됨</li> <li>- 아동과 모의 방향은 측면임</li> <li>- 사람의 크기가 작음</li> <li>- 머리, 팔, 다리의 비율이 맞지 않음 (큰 머리와 짧은 팔)</li> <li>- 필압이 강하고 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모와 아동이 손을 잡고 있음</li> <li>- 친모와 아동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표현됨</li> <li>- 아동과 모의 방향은 정면임</li> <li>- 사람의 크기가 적절함</li> <li>- 머리, 팔, 다리의 비율이 적절</li> <li>- 필압이 적절함</li> </ul>

KFD 사전검사에서는 친모와 아동과의 거리를 가장 멀리 그려 두 인물상 간에 친밀감의 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보임. 또한 가족구성원 중앙에 동생이 있고 동생의 생일 파티로 이는 동생이 가족의 중심인물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에 반해 KFD 사후검사에서는 뚜렷한 중심인물이 없고 친모와 아동이 손을 잡고 아동 옆에 밀접해 있어 친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교류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음.

**4) 요약**

(1) MMPI SCT 사전·사후 검사에서 친모의 스트레스 수준이나 스트레스 대처법이 나아진 것으로 보임.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됨.

(2) 일반 정신건강 척도, 부모양육 태도간편, 양육 효능감, 양육행동 사전·사후 검사에서 상승된

점수를 보이고 부모 양육부담 간편 점수는 감소되었음. 이는 친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에 대한 부담감, 자신감, 양육행동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사료됨.

(3) KFD 사전검사에서는 친모와 아동과의 친밀감의 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을 보였으나 KFD 사후검사에서 친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교류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음.

## 2. 치료종결사유 및 사후관리 계획

### 1) 종결사유

친모는 개별상담 5회기 이후 아동 양육태도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함. 분노감 조절에 대한 성공을 경험한 후 부터 아동양육에 자신감이 상승됨. 그 후 분노감 조절에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모자치료 8회기 이후 실패의 횟수가 줄어들고 성공 경험이 많아짐. 이를 통해 친모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조절능력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음. 모자 치료를 통해 아동과 모와의 친근한 관계가 유지되고 모자치료 8회기 이후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모자치료시간에 아동에게 양보하는 면이 증가되었으며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조정하는 모습을 보임. 이에 초기 치료 친모의 양육태도 변화와 아동과 친밀한 관계맺기를 통해 재학대 예방의 목표와 부합되는 변화를 보여 모자치료 14회기 후 치료를 종결하게 됨.

### 2) 사후관리 계획

친모는 개별치료 중에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동과의 관계에 스트레스에 해소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

친모는 현재 1년 6개월 간 휴직계를 낸 교직생활에 다시 복귀함. 이에 모가 직장생활과 함께 아동 양육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 달 간격으로 전화로 친모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또한 아동양육에 대한 서적 소개를 통해 모가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개별 심리치료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외부기관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친모에게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할 계획임.

## VII. 평가 및 제언

현대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TV와 대중매체를 통해 아동학대가 다뤄지며 그 심각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아동학대의 신고률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이 대두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과 행위자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지만, 학대피해아동에 비해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부족한 실정임. 2012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학대피해아동 중 8.4%는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학대행위자들은 5.7%만 혜택을 받아 현재까지 학대행위자 치료적 접근은 미흡한 상태임.

학대피해 아동에게 나타나는 학대 후유증을 해소 하는 것만큼이나 행위자의 학대행위 근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서비스가 활발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학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며 이는 아동의 안전이 위협 당할 수 있음을 나타냄.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학대행위자에게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대행위자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 재학대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본 프로그램은 학대행위자의 치료 효과성을 위해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행위자에게 부모개별치료, 학대행위자 프로그램, 모자치료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음. 부모개별치료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학대행위자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태도의 변화를 도모하며, 모자치료를 통해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재학대가 예방 될 수 있도록 하였음.

본 프로그램의 한계점은 학대행위자의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과 제한된 인력 및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학대행위자 프로그램 후 자조모임이 결성되지 못했던 점이 있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조모임을 이끌 수 있는 인력충원과 학대행위자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봄.



## 사례 02

아동학대  
사례개입

# 즐거운 나의 집을 꿈꾸다!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요약

개인신고 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던 중 시설 내 장애아동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본 기관에 신고 되었다.

개인신고 시설의 특성상 외부에서의 감사나 모니터링이 쉽지 않았고, 아동들의 나이가 어려 구체적 학대내용의 진술이 어려웠으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 열악한 시설 환경 및 근무인원으로 인해 아동학대(방임)에 노출되었던 상황이다.

유관기관(도청, 시청, 주민센터,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심리치료센터,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동들을 안전하게 전원조치하고, 심리치료를 진행하였다. 경찰조사를 통해 구속조치가 진행되었다.

### 키워드

개인신고시설, 시설내 아동학대, 지역사회연계, 후견인 변경

## I. 개요

<b>아동</b>	시설아동 28명	<b>학대행위자</b>	시설장·후견인(남/50세)
<b>사례관리기간</b>	2013년 5월 21일 ~ 2013년 9월 30일 (현재)		
<b>학 대 유 형</b>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b>조치 결과</b>	<b>초기</b>	피해아동 : 긴급분리	학대행위자 : 시설장·후견인
	<b>최종</b>	피해아동 : 전원조치	학대행위자 : 시설장·후견인
<b>주요협력/연계기관</b>	행정 : 도청 여성복지과, 시청 아동여성계, 주민복지과, 노인장애복지과 기관 : 학교, 지역아동센터, 심리상담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경찰서 시설 : 장애전담시설, 아동보육시설, 그룹홈,		

## II. 신고접수

최근 해당 시설내에서 5세 장애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아동이 물리적 방임 및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 됨.

해당 시설에서 아동들의 모습이 기아에 허덕이는 난민과 같은 모습이며 열악한 환경 탓인지 의복이 더럽고, 개인위생 관리가 되지 않아 냄새가 나고 머릿니도 발생하고 있다함.

## III. 현장조사

신고접수를 받고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은 개인신고시설로서 행정기관과 외부인의 접근과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기존에 지자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을 당시 방임의심 부분이 이미 해결되었거나 아동들의 나이가 어려 진술이 어려웠던 상황임. 특히 해당 시설장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며 이름이 나 있는 상황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음. 이에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시점으로 아동들이 외부에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아동들의 실질적인 생활모습과 관련하여 자료 및 증거수집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례개입을 위해 기관간사례회의를 우선 진행하였음.

### 1. 기관간 사례회의

#### (1) 1차 회의 : 학대의심 내용 확인을 위한 회의(2013.04.29)

신고내용을 근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기관간(행정기관 담당계장, 경찰서 담당 계장, 지역아동센터장,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의를 진행하여 아동의 최근까지의 실제 생활환경 및 모니터링 결과 종합함. 이를 통해 학대의심내용 확인.

주변에서 관찰한 내용에 의하면 아동들이 전체적으로 체격이 왜소하였으며, 아동들의 머리에서 머릿니가 발견되었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삭발을 하기도 함. 또한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개인위생 상황이 좋지 못하며, 한 가지 옷으로 한 계절을 나는 등 개별적인 관리가 평소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 함.

#### (2) 2차 회의 : 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기관간 회의(2013.05.20)

해당 경찰서에서 관련기관간 회의를 통해 아동상담방법 및 기관간 업무협의 진행. 행정적 감사 및 경찰수사, 아동전문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함.

## 2. 해당시설 아동 전수조사 상담 - 2013.05.22

- 해당 시설의 전수조사를 위해 지역의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합하여 상담원들을 배치하여 아동 개인별 상담을 진행함. 상담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 1명, 상담원 1명을 배치하여 학대 피해아동조사면접기술(NICHD)을 사용하여 상담 진행.
- 상담당시 시설내부 외부는 청소가 이미 잘 진행되어 있었고, 아동들도 잘 세탁된 의복, 깨끗한 개인위생상태가 관찰됨. 이는 시설장 및 관계자가 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아동들에게 교육이 진행됨.
- 아동상담 및 주변인 상담(학교, 지역아동센터)을 통해서 심층적 상담결과 아동들의 신체적인 체 별 및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사발, 비위생적인 환경 및 열악한 개인위생관리, 학습지원의 부족 등을 확인함.
- 아동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식탐, 학습부진, 위축 등의 모습이 관찰됨.
- 생활시설 내에 아동들의 주거하는 방 밖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시설종사자가 가족 또는 지인으로 구성되어있고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이었음을 확인 함.

## 3. 주변인 조사 상담(학교, 지역아동센터, 이웃) - 2013.05.22~24

- 아동들은 장애, 비장애 상태로 유급된 영아 시절부터 당시 비인가 개인 시설에서 보호 되던 중 2008년 개인신고시설로 등록되었으며, 해당 아동동들을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받아 보호 함.
- 28명 아동들에 대해서 생계비(수급지원비) 및 장애수당으로 매월 1500여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는 부식비로 1개월에 60~70여만원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음을 확인함. 아 동학대 및 횡령부분 수사진행됨.

- 아동들이 어릴적부터 시설에 적응하며 살았으며, 진술능력이 약해 학대피해에 대한 진술이 어 려움. 당시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며 외부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아동들의 모습 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관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변인 조사를 진행한 결 과 평소 해당 아동들의 물리적방임(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불결한 개인위생관리, 머릿니, 사발 행위, 학습 미지원) 확인.

## IV. 사례판정

아동학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발 행위(정서학대)</li> <li>- 머릿니, 개인 위생상태 불결, 불결한 의복(물리적 방임)</li> <li>-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음(물리적방임)</li> </ul>
잠재위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하교길 지도하지 않음(통학 중 안전사고 위험성 높음, 아동들끼리 학교를 보냄)</li> <li>- 아동 생활시설 방문 외부에 잠금장치(아동 감금우려)</li> <li>- 주식 및 간식의 부적절한 제공(아동 건강 저해 우려)</li> <li>- 장애아동 및 비장애 아동 함께 거주 하며 생활</li> <li>- 시설내의 일들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 함</li> </ul>

## V. 사정 및 사례개입

### 1.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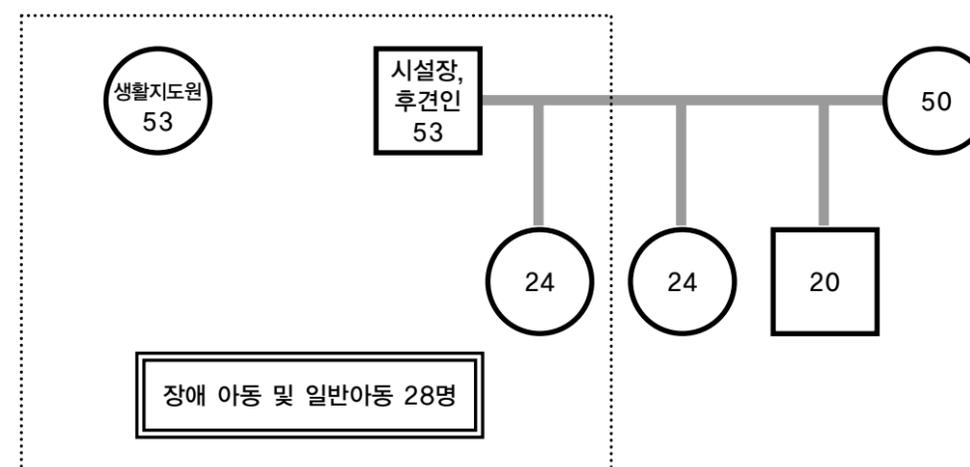
#### 1) 피해아동의 가족관계 및 가족력

① 가족관계

아동과의 관계	성별	연령	직업/학교	비고
시설장, 후견인	남	53		시설장
시설장 부인	여	50		시설장 부인
시설종사자	여	53		
생활지도원	여	24		시설장 장녀
피해아동1	남	12	맹아학교	시각장애1급
피해아동2	남	11	장애학교	뇌병변장애1급
피해아동3	남	6	장애학교	지적장애1급
피해아동4	남	8	장애학교	지적장애2급
피해아동5	여	7	장애학교	지적장애2급
피해아동6	여	7	장애학교	지적장애3급
피해아동7	남	5	장애전담어린이집	지적장애3급
피해아동8	여	5	장애전담어린이집	지적장애3급
피해아동9	남	10	초4	
피해아동10	남	10	초4	
피해아동11	여	10	초4	
피해아동12	여	10	초4	
피해아동13	여	10	초4	
피해아동14	여	9	초3	
피해아동15	남	9	초3	
피해아동16	남	9	초3	
피해아동17	여	8	초2	

아동과의 관계	성별	연령	직업/학교	비고
피해아동18	남	8	초2	
피해아동19	남	7	초1	
피해아동20	남	7	초1	
피해아동21	여	7	초1	
피해아동22	남	6	어린이집	
피해아동23	여	6	어린이집	
피해아동24	남	5	어린이집	
피해아동25	남	5	어린이집	
피해아동26	여	4	어린이집	
피해아동27	남	4	어린이집	
피해아동28	남	5	어린이집	미혼모/ 미신고 아동

② 가계도 및 가족력



장애아동 및 일반아동들을 시설장, 시설장의 딸, 생활지도원이 주로 돌보았으며, 시설장 부인은 주로 사무일 등을 보며 남편과 같이 운영함.

시설장의 아내는 미혼모생활시설을 운영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폐쇄신고 상태였음.

## 2) 위험사정

대상	위험요인
피해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직후 부모에게 유기된 아동들임.</li> <li>- 친부모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등록 지정되어 있음.</li> <li>- 어릴적부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현재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함.</li> <li>- 장애아동 및 비장애 아동이 함께 거주하지만, 개인신고시설로 정부지원을 받지 않아 아동 관리인력의 부족 발생.</li> <li>- 개인위생상황이 좋지 못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함. 학습능력이 떨어짐.</li> </ul>
학대행위자 및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절한 양육태도(물리적 방임, 정서학대)</li> <li>- 아동들의 외부공개를 극히 꺼려함.</li> <li>- 아동시설 운영자로 지역사회에 나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li> </ul>
가족 및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및 비장애 아동, 미등록 아동 등 친부모의 파악이 어려운 아동 30명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함.</li> <li>- 아동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생활지도원등의 직원이 부족(시설장, 시설장 부인, 생활지도원2).</li> <li>- 가족들이나 지인으로 구성되어 적절한 양육환경 제공 및 아동생활지도가 불가함.</li> </ul>

## 3) 강점사정

대상	강점 및 자원 찾기	
피해아동	특성	어릴적 부모로부터 유기 된 아동 아동들간의 유대 관계가 강함.
	공식자원	지역아동센터와 관계가 좋음. 학교와 주변 지역사회의 관심.
	비공식자원	각종 후원단체가 많음.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내용을 인정하고 내려놓는다고 함. 아동들을 좋은 시설로 보내기를 원함.
	공식자원	지역 종교단체
	비공식자원	후원단체

## 4) 욕구사정

대상	제시한 욕구
피해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해 함(생활환경을 옮기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li> <li>- 의식주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청(특히 먹는 부분에 대한 강한 욕구).</li> <li>- 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함.</li> <li>- 애정에 대한 욕구</li> </ul>
학대행위자 및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들을 안전한 곳으로 함께 보내면 좋을 것을 원함.</li> <li>- 이전 아동들이 믿던 종교 활동이 지속되어지도록 도움을 요청함.</li> </ul>
가족 및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자진폐쇄</li> </ul>

## 2. 개입목표 및 계획

### 1) 개입목표

- 아동의 권리에 의거하여 아동들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환경으로 전원조치(미등록, 장애아동 우선 조치 후 전체아동 전원조치)
-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한 가정환경 확보 또는 제공
- 아동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제공
-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여 아동 관리
- 아동들의 후견인 변경을 통한 장기적 보호진행

### 2) 개입계획

#### ① 단기계획

진행방법	목표	수행 및 협력기관	개입방법
긴급 (1순위)	미등록 아동 입소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 현장조사 과정에서 명단에 없는 미등록아동 발견하였음(미혼모 아동) - 우선 현장조사 당일 확인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조치
긴급 (2순위)	장애 아동의 시설 전원 조치 진행	아동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증장애인 우선으로 아동 전원조치 진행 - 해당 지자체에서 장애아동 시설로 직접 의뢰하여 신속한 입소처리진행
긴급 (3순위)	일반아동 전원조치	사례판정위원회의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지원센터	- 해당 사례에 대한 긴급 사례판정위원회 진행을 통해 객관적 판정 진행 및 사례개입방안 모색 - 전체아동에 대해서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 전원조치 진행

#### ② 중장기계획

진행방법	목표	수행 및 협력기관	개입방법
중기 (1순위)	행위자에 대한 조치 진행	관할 경찰서 지능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요청 및 진행
중기 (2순위)	장애아동 재검진	경로장애인과 장애시설	- 장애아동들의 등급재조정을 위한 재검진
중기 (2순위)	아동들에 대한 심리 검사 진행	심리치료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장애아동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 전원내 대한 종합적 심리검사 진행
중기 (3순위)	심리치료를 통한 심리적 안정 확보	심리치료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특성에 맞도록 심리치료 진행
장기	후견인 변경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들의 보호자가 현재 시설장으로 지정되어 있음. 후견인 변경진행
장기	모니터링 체계	아동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들에 대한 생활 및 기타 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리진행

## 3. 개입과정

### 1) 초기단계

유관기관 회의를 2차례 진행하며 신중한 사례개입을 준비함. 해당 시설의 아동들 숫자가 많고 한 꺼번에 즉각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사례개입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논의하고 초기 개입방법과 진행기관을 결정하여 진행함.

- 2013.05.22 아동들의 상담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수사자료로서의 진술확보를 위해 같은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사례 내용을 공지하고, 학대피

해아동조사면접기술(NICHD)를 숙지하고 활용이 가능한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원을 배치하여 아동상담을 준비함. 또한 현직 수사관을 상담에 동참시켜 상담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함.

- 2013.05.23 현장조사를 통해 미등록 아동(미혼모)이 발견됨. 바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 후 아동 복지시설로 입소조치 진행함. 이후 친모의 소재를 파악하여 친모가 OO정신과병동에 입원해 있음을 확인하여 연락 후 정식 시설입소처리 진행함.
- 2013.05.28 중증장애(지체장애 2급이상)에 대해서 우선 입소조치가 필요함이 판단되어 현재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장을 설득하여 장애아동들에 대한 분리를 동의 받아 지자체(아동복지과, 경로장애인과)와 즉각적 논의 하여 입소시설 선정 및 조치를 진행함.
- 2013.05.29 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 상담 및 설득을 통해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전원조치를 요청함. 경찰수사를 통해 사법적 처리와 동시에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설득을 통해 아동들 전원에게 대한 전원조치에 동의 함.
- 2013.05.31 사례판정위원회의를 통해 전문가의 사례판정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고,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사례를 진행함.
- 2013.06.02 학대행위자가 시설자진폐쇄신청을 진행함.
- 2013.06.03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파악된 아동특성과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아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한 후 아동복지시설 2곳, 그룹홈 1곳에 아동들을 분산 배치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동들을 가정위탁조치를 진행 함.
- 2013.06.04 학대행위자 대한 진술협조 및 검찰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법적 구속처리 됨.

## 2) 중기단계

사례관련하여 중간 진행과정에 대해서 해당지자체와 함께 중간 결과보고 회의를 진행함. 현재의 상황 등을 재정리하였으며, 아동들에 대한 치료서비스 등에 대한 부분을 논의 함.

- 2013.06.05 아동들이 해당 시설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전원조치 진행이후 계속 확인함. 초기에 분리에 대한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이전 시설보다 좋은 생활

환경, 좋은 음식, 서비스로 인해 단기간 내에 아동들의 적응을 확인 함.

- 2013.06.10 장애아동들에 대한 전체적인 장애재진단을 요청함(일부 아동들이 장애급수에 비해 상태가 좋음이 확인되어 지자체를 통해 재진단 요청). 확인결과 1명의 아동이 원래 지적장애 3급이었으나 일반 아동으로 소견이 나와 판정진행중임.
- 2013.06.18 해당 아동들이 보호자 없이 시설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 아동들에 대한 후견인 변경신청을 진행함. 이전까지 대규모 후견인 변경에 대한 사례가 없어 해당지자체 담당주무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검찰, 법원 등에 문의하여 진행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지자체를 통해 후견인변경신청을 법원에 요청함. 현재 아동들의 보호시설장으로 후견인 변경이 완료 됨.
- 2013.06.22 장애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동들 특성에 맞도록 치료사를 연계하여 치료진행중임.

## 3) 종결 전 단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들의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있음. 아동들이 입소 초기에 비해 건강 상태 및 심리정서적 상태가 많이 안정화 되었으며,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음.(입소 당시 사진과 1개월 이후 변화 사진을 통해서도 확실한 변화가 관찰 됨)

## 4) 서비스 연계

아동의 시설내 모니터링을 위해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을 진행함.

## VI. 사례종결

### 1. 사례개입 평가

협력기관	서비스 내용
경찰서	아동 진술조력 및 학대행위자 구속수사
학교	아동 생활모니터링 및 학습지원
검찰청, 법원	학대행위자 수사 및 공판 후견인 변경 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생활모니터링, 정서지원, 학습지원
심리치료센터	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행정기관	아동관련 보호시설 연계 및 입소 아동 장애재진단 요청 및 확인 아동 후견인 변경 신청 아동 생활모니터링 후원연계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연계 및 모니터링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사례에 대한 전반적 개입 및 조정 모니터링서비스 제공

### 2. 종결사유 및 소견

- 해당 시설은 개인신고시설로 운영되어지던 곳으로 행정기관의 관리와 기관의 접근이 매우 어려웠으며, 현장조사를 통한 객관적 근거확보가 매우 어려운 숙제였던 사례였음.
- 사례개입목표를 세우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장 우선순위였던 아동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전원조치를 진행하였음. 이후 시설장은 아동전원조치직후 시설의 자진폐쇄를 진행하였으며, 시설장에 대해서는 구속조치가 바로 진행되었음.

- 이후 아동들의 안전한 적응을 수시로 체크하며 아동들이 안정을 취한 직후 바로 치료시설과 연계하여 심리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아동들의 후견인이 시설장으로 설정되어 있던 바 이를 해지청구하고 변경신청하는 조치를 진행하였음.
- 장애아동들의 재진단을 통해 장애가 적절하게 판정되었는지도 체크하였으며, 아동들이 특성에 맞도록 잘 보호될 수 있는 시설에서 현재 최선을 다해 보호되어지고 있으며 모니터링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고 있음.
- 아동들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으며, 건강상태도 매우 좋아져서 현재 신체,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확인되어졌다. 이에 10월중 아동들의 상태를 최종 확인하여 사례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임.

## VII. 사후관리

### 1. 사후관리계획

진행방법	목표	수행 및 협력기관	개입방법
단기	유관기관을 활용한 모니터링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생활시설 심리치료센터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최대한 아동들의 정서지지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체계 진행
중기	전체 아동 만남시간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생활시설	- 방학중 다른 기관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한꺼번에 모아 서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 마련 - 각 기관에서의 생활등을 모니터링

## VIII. 평가 및 제언

본 사례는 개인신고시설의 특성상 법적인 관리와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전에도 방임 등이 의심되어 여러차례 개입을 시도하였으나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고 아동들이 어릴적부터 가족처럼 살아오던 상태에서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는게 어려웠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중하고 정확하며 신속한 개입을 위해 행정, 사법,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례회의 및 사례판정회의, 아동분리 및 전원조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설 내 보호되던 29명 아동 전체를 짧은 시간 동안 안전을 확보하였음.

각 기관별로 정해진 역할을 분담하고, 최대한 빠른 진행을 위해 담당자들이 수집한 정보와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자원을 활용하였으며, 동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동진술면접 기술(NICHD)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상담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진술 및 생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사례판정과 개입을 진행함.

사례개입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시설장의 개입거부가 강한 상황이었고, 시설 공개를 거부하여 접근이 어려웠으며, 또한 시설장이 본 기관의 조사를 미리 눈치채고 아동들에게 좋은 말만 하도록 지시한 상황 등이 있었고, 아동들이 영아시기에 유기되어 가족처럼 생활하던 상황에서 구체적 학대 내용 진술이 어려웠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 상담결과와 더불어 주변 기관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 등을 확보가 중요하였으며, 이에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진행되었고 현장 조사와 근거자료를 모아 객관적인 판단 자료들로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였음.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지원을 통해 대규모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장애인시설 등으로 나누어 발 빠르고 적절한 전원조치를 진행하였고 후견인을 변경하였으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 진행에 대해서도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적극적 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진행되는 등 지역사회의 힘이 크게 작용한 사례였음.

기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입함으로 신속한 개입이 진행되었고, 아동들의 정확한 정보를 기관간에 제공하고 공유함으로 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아동들이 해당 시설 및 가정에 최대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사례개입 과정 중간에도 함께 문제를 깊이 있게 사정하고 협의하여 진행상황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음. 이 사례의 진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

문성을 확보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기관들도 인식하고 이후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 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하나의 기관이 아무리 전문적이라고 할지라도 본 사례와 같이 아동의 숫자도 많고, 개입하기에도 어려운 사례의 경우 개입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한계를 겪게 되었을 것임. 하지만, 본 사례처럼 여러 기관이 자기 기관만의 특성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며 개입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사정과 목표설정, 역할분담을 통한 개입이 진행되었음. 이는 각 기관별 장점을 극대화 시켜 최적의 사례진행 및 서비스제공의 효과를 가져왔음. 더불어 각 기관들이 서로기관의 특성과 장점을 이해하고 더욱더 확고한 네트워크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사례진행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됨.





# 사례 03

아동학대  
사례개입

## 세자매의 다시 찾은 희망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 요약

본 사례는 신고접수부터 행위자 처벌, 사후관리까지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 협력하여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임.

민·관이 협동하여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며 현장조사 이후 신속한 고발조치 및 경찰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지를 할 수 있었음. 또한 7번의 통합사례회의 및 솔루션회의를 통해 아동가정에 대한 각 기관들의 역할 분담할 수 있었으며 사례관리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조정과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아동들의 치료와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

### 키워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개별육구중심, 행위자처벌, 병원 치료

## I. 개요

<b>아동명</b>	피해아동1: 여아(17세) 피해아동2: 여아(14세)	<b>학대행위자</b>	친부(47세) 동거녀(48세)
<b>사례관리기간</b>	피해아동1: 2013년 1월 22일 ~ 2013년 7월 29일 피해아동2: 2013년 1월 22일 ~ 현재		
<b>학 대 유 형</b>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b>조치 결과</b>	<b>초기</b>	피해아동1 : 병원입원 피해아동2 : 병원입원	학대행위자1 : 고소고발 학대행위자2 : 고소고발
	<b>최종</b>	피해아동1 : 친족보호(친부) 피해아동2 : 친족보호(언니)	학대행위자1 : 고소고발 학대행위자2 : 고소고발
<b>주요협력/연계기관</b>	시청, 동주민센터, 무한돌봄센터, 경찰서, 검찰청, M,L병원, M언론사, 사회복지협의회,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법률사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H후원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Y교회		

## II. 신고접수

본 사례는 2013년 1월 22일 신고 된 사례로 세자매가 보호체계 없이 곱팡이 가득한 가정에서 2년 동안 가스를 켜 본적 없이 밥솥에 물을 데워서 씻는 등의 생활을 하여 아동들은 동상에 걸린 적도 있으며, 세자매와 동거하지 않는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40만원의 생활비를 받으며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고 함. 아동1은 정서적 불안정, 아동2는 다리마비로 인해 입원조치 됨.

## III. 현장조사

현장조사 당시 무한돌봄센터, 동주민센터, 병원, 경찰의 함께 아동들, 학대행위의심자 친부, 동거녀, 주변인(아동의 언니, 목사, 사모, 병원 의사)을 총 4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사실여부를 확인함.

### 1. 아동 조사

아동1은 M병원에서 신경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음.

아동2는 M병원에서 정형외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1월 23일 고관절 수술을 하여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2. 학대행위의심자 친부 조사

친부와 동거녀는 2006년부터 약 1년간 세자매와 함께 생활을 하였으나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친부는 집을 나와 지방에서 일을 하며 아동2의 통장으로 매달 80만원을 보냈다고 함.

친부는 약 5년간 세자매와 떨어져 지냈으며 동거녀는 친부가 아동들을 만나면 ‘뺨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아동들을 못 만나게 하였다고 함.

### 3. 학대행위의심자 동거녀 조사

동거녀는 2011년 아동들이 T동으로 이사를 한 뒤, 세자매와 따로 지냈다고 함. 아동가정의 보일러 틀지 않고 생활했던 부분에 대해 동거녀는 ‘집이 훈훈하고 따뜻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였으며 아동1, 아동2의 몸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다고 함.

동거녀는 친부가 매달 아동에게 생활비 80만원을 보내주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거녀는 이중 30만원을 아동의 언니에게 보내주거나 부식을 배달시키지만 이 또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함. 동거녀는 친부가 보내준 돈 일부를 본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고 하였음. 아동들의 학교문제에 대해 동거녀는 아동1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학교를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아동2는 몸이 약하고 통학거리가 멀어 학교를 그만두게 했다고 함. 아동의 언니에 대해서는 M고등학교에 진학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학교가 질이 좋지 않아 진학을 시키지 않았다고 함. 동거녀는 세자매의 생활습관이 불규칙적이며 자유분방하여 엄격하게 지도하였다고 하며 세자매를 '자식처럼 키우려고 했다'고 함.

#### 4. 주변인 조사

##### 1) 목사, 사모

Y교회 목사와 사모는 아동가정을 발견한 최초 신고자로 아동의 언니는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 목사가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오게 되면서 아동가정에 대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함. 목사와 사모는 최초발견 당시 아동가정 사진을 보여주며 세자매가 생리대가 없어 손수건과 휴지를 이용해서 사용한 점, 곰팡이가 가득한 가정의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며 아동들이 동거녀에 의한 감시, 협박으로 인하여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 2) 아동의 언니

- 정서학대 의심상황: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아동들을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머리를 잘라라” 등의 폭언, 협박, 세자매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하며 대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등 통제 하였다고 함.
- 물리적방임 의심상황: 2년 동안 도시가스과 난방이 되지 않는 곰팡이가 가득한 가정에서 생활하며 동거녀가 보내주는 생활비(월세 등)나 식료품(라면, 쌀, 고추장)으로 의식주를 해결하였으나 정기적이지 않고 생활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여 굶는 경우가 잦았다고 함.

- 의료적방임 의심상황: 아동들은 간질이 있었으며 아동1의 경우 몇 달 전 부터 몸의 통증을 호소했으며 환청, 환영이 보이며 자살시도도 하였고 아동2는 다리 통증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병원진료를 받지 못했음.
- 교육적방임 의심상황: 동거녀가 지급하는 생활비가 정기적이지 않아 교통비, 수업준비를 준비할 수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였다고 함.

##### 3) M병원 신경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간질과 영양결핍으로 인해 칼슘수치가 정상인의 절반상태였음. 아동1은 현재 흉추의 압박골절로 인해 보조기구착용이 필요하며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포기상태, 학습된 무기력 상태라고 함. 또한 생리를 하고 있지 않았음. 아동2는 골반변형, 골절로 인한 고관절수술을 받았음.

## IV. 사례판정

### 1. 동거녀에 대한 사례판정

아동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거나 통제,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와 보호체계 없이 아동들만 방치한다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여 동거녀에 의한 정서·물리·교육·의료적 방임 학대로 판정함.

### 2. 친부에 대한 사례판정

보호자인 친부는 아동들을 동거녀에게 맡긴 이후, 아동들의 생활에 무관심, 방임하여 물리적 방임 학대로 판정함.

## V. 사정 및 사례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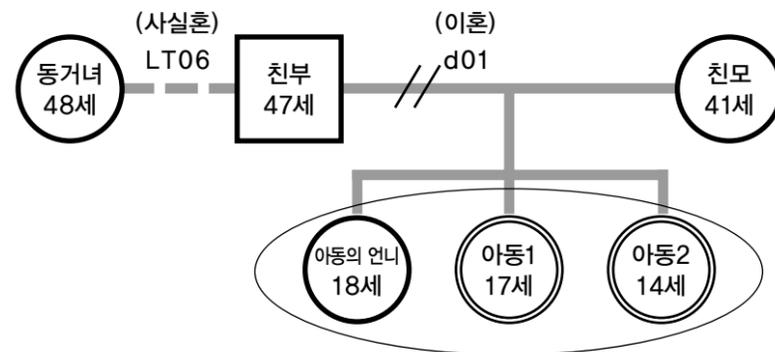
### 1. 사정

#### 1) 피해아동의 가족관계 및 가족력

##### ① 가족관계

아동과의 관계	성별	연령	직업/학교	비고
친부	남	47	조리실장	비동거
친모	여	40	파악불가	이혼/주민등록말소
동거녀	여	48	무직	비동거
아동의 언니	여	18	-	동거
아동1	여	17	-	동거
아동2	여	14	-	동거

##### ② 가계도 및 가족력



- 2001년 4월 친부모는 이혼 후, 1년 정도 친모가 아동들을 양육하였으나 방임상황이 지속되어 이후 친부가 아동양육을 하였음.
- 2006년 친부와 동거녀, 아동들은 함께 생활하였으나 잦은 부부싸움으로 친부는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하게 되어 동거녀가 아동들을 양육하였음.

#### 2) 위협사정

- 친부: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학대행위자 동거녀에 대해서도 처벌과 선처를 바라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임. 또한 현재 파산상태이며 국세, 지방세가 체납된 부분이 있음.
- 친모: 주민등록말소 상태이며 행방을 파악할 수 없었음.
- 언니: 친부에 대한 거부감, 불신이 높은 상태이며 피해아동들 양육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음.
- 아동1: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학대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언니와 아동2에 대한 갈등이 깊음.
- 아동2: 학대 후유증으로 고관절 수술 후,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상황임.

#### 3) 강점사정

- 친부: 아동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으며 근로능력이 있음.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조사에 협조적임.
- 동거녀: 아동들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조사에 협조적임.
- 언니: 본인이 아동들의 보호자로서 아동들의 병원치료가 끝나면 아동들을 보호할 의사를 갖고 있음. 최초신고자 목사, 사모를 통해 아동의 언니의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보호가 가능함.
- 아동1: 친부와 긍정적인 관계이며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음.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원활한 협조 및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함.
- 아동2: 밝은 성격으로 학업에 대한 열의, 치료 및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원활한 협조 및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함.

#### 4) 욕구사정

- 친부: 아동들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 하며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가 높음.

- 동거녀: 본인의 가족에게 아동학대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함.
- 언니: 친부와 본인을 보호해주고 있는 목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나, 현재 친부와 연락하고 싶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목사의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함. 아동들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바라며 동거녀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함(아동1,2의 공통적인 욕구)
- 아동1: 퇴원 후 친부와 세자매가 함께 살기를 원하며 대입, 또래관계, 문화체험 등의 욕구가 강함.
- 아동2: 퇴원 후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친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언니들과 지내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함.

## 2. 개입목표 및 계획

### 1) 개입목표

- 사례개입 초기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하여 가족관계의 회복 및 아동들의 병원치료 후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목표로하였으나 자매간의 갈등 관계문제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아동들의 개별욕구에 따른 목표를 계획하여 진행함.
- 아동1은 친부와 지내기를 원하며 아동2는 언니와 지내기를 원하는 욕구를 확인함. 이에 병원치료를 통해 학대피해에 대한 의료적인 조치를 한 뒤, 아동들을 개별가정으로 복귀 후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통해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환경을 제공하여 재학대를 받지 않도록 함을 목표로 함.

### 2) 개입계획

#### ① 단기계획

-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에 대한 개입방안 논의, 업무분장 및 공유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아동복지긴급대상자 선정 확인
- 아동들에게 학대피해로 인한 입원치료 지원
- 아동들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실시
- SNS메신저를 활용하여 아동의 병원생활 모니터링

- 고발조치에 따른 학대행위자 경찰조사 모니터링
- 친부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재학대방지

#### ② 중장기계획

-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진행사항에 대한 사례회의 및 솔루션회의 실시
- 아동개별욕구에 의거하여 아동1과 친부의 주거지 마련, 아동2와 언니의 주거지(전세임대주택) 마련 연계 확인
- 퇴원 후, 학대피해로 인한 외래진료, 심리치료 지원
- 전세임대주택 입주 후, 아동들의 가정방문, SNS메신저를 통한 생활부분 모니터링
- 아동들의 일상적응훈련 및 외부활동지원
- 아동들의 고입, 대입을 위한 학원연계
- 아동가정의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실시
- 학대행위자의 검찰수사 결과 확인 및 재판과정 모니터링
- 친부에 대한 양육 상담 실시

## 3. 개입과정

### 1) 초기단계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통합사례회의 및 솔루션회의를 통해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 업무분장 및 진행사항을 공유하여 원활하게 사례에 대해 개입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후 즉시 친부를 경찰서에 인계하는 등 친부와 동거녀를 고발조치함.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치료과정을 모니터링 하며 아동학대피해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7곳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실시함.

- 경찰서: 2013년 1월 28일(월) 친부, 동거녀에 대한 불구속입건 수사진행 함.

- 시청, 동주민센터, 무한돌봄센터: 2013년 1월 29일(화) 긴급복지대상자 및 무한돌봄대상자로 선

정하였으며 1월 30일(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되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함.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아동의 언니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함.

- 병원: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체계 유지하며 언론에 아동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함. 병원 치료와 더불어 아동들의 심리검사를 진행함.

- 2013년 1월 31일(목) 이후 아동들에 대한 후원계좌가 설립되었으며 인터넷모금활동도 추진됨.

- 아동1은 2013년 2월 1일(금) 정형외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우울, 자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간질로 인한 신경과, 허리디스크로 인한 정형외과, 생리불순으로 인한 산부인과, 안과 협진을 실시함.

- 아동2는 2013년 1월 23일(수) 1차 고관절 수술 후, 1월 30일(수) 2차 수술을 진행함. 이 후 정신건강의학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협진을 실시하였으며 3월 29일 타병원조치 되어 재활치료 및 정신과상담을 받음.

## 2) 중기단계

아동들의 퇴원과 관련하여 자립지원방향 논의, 가족심리치료에 대해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통합사례회의 및 솔루션회의 실시함.

- 아동1: 오랫동안 지속된 학대상황으로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경계선 인격장애 성향을 갖고 있으며 강박적인 자해욕구, 반복적인 외상적 기억 등의 불안정성 상태에 있음.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아동은 2013년 5월 22일(수) 자매들과 지내지 않고 친부와 함께 지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밀착 사례관리를 받으며 외래진료 및 면담치료, 학원등록, 타기관 프로그램 이용논의, 문화체험 및 외부활동, 개별상담을 지속함. 아동은 지속적인 자해문제가 있어 시청에서는 친부가 아동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에 월세 40만원, 생활비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아동가정에 대한 지지적인 역할을 수행함.

- 아동2: 아동2은 L병원에서 재활 및 재활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아동이 퇴원 후, 아동의 언니와 지낼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에 가구를 지원

함. 아동2은 2013년 5월 31일(금) 퇴원 후, 아동의 언니와 함께 전세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Y교회의 목사, 사모의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고입을 위한 학원등록, 재활 및 생활상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와 개별상담을 받고 있음. 가족치료는 세자매의 거부로 인해 실시할 수 없어 아동개별면담치료를 진행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 친부: 친부는 2013년 2월 13일(수) 검찰로 송치되어 2월 22일(금) 기소유예(불기소)로 처분됨. 이후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 작성 후,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주1회 양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 동거녀: 동거녀는 2013년 2월 13일(수) 검찰로 송치되어 4월 25일(목) 아동복지법 17조 5항, 6항을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음.

## 3) 종결 전 단계

시청, 무한돌봄센터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사례종결에 따른 업무를 협의함.

- 아동1: 2013년 6월 'K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하여 2014년 3월 입학예정이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시청에서 아동의 소속감향상을 위해 아르바이트, 문화 활동을 지원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의 외래진료, 외부활동 및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아동 사회성향상에 초점을 둠.

- 아동2: 2013년 9월 13일(금) 고입 비교평가시험을 보았으며 10월 1일(화) 고입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을 다니기로 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가정에 대해 지속적인 방문을 하며 외래진료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후 유관기관과 종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학대행위자 친부: 아동양육 스트레스 관리를 해소시키며 올바른 양육에 대한 상담을 주1회 진행함.

- 학대행위자 동거녀: 2013년 7월 11일(목) 항소하였으며 10월 31일(목) 공판이 있을 예정임.

<협력체계와의 연계 및 다양한 서비스내용>

협력기관	서비스 내용
시청, 무한돌봄센터	전반적인 행정부분에 대한 지원 연계 (등록금, 학원비, 의료비, 주거지 마련, 생활비 등)
동주민센터	기초수급자, 긴급복지대상자, 가정위탁아동선정(월120만원지급)
경찰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사례회의 참석
검찰청, 법원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공판
M, L병원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 소견제공, 사례회의 참석
M언론사	아동가정에 대한 솔루션회의 진행
Y 교회	비공식적 체계로 아동들에 대한 지지적 역할수행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법률사무소	아동가정에 대한 소견 및 사례회의 참여
사회복지협의회, H후원단체, 시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후원금 마련 및 지원(총 1억원)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복지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신고 이후 다양한 협력체계와의 연계를 하여 아동가정에 대한 개입 및 아동개별육구에 의거한 서비스제공

## Ⅵ. 사례종결

### 1. 사례개입 평가

사례개입 후 아동개별육구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를 통한 병원치료, 안전한 보호환경제공, 행위자처벌 등을 통해 아동이 재학대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개입목표들을 상당부분 달성하였으며 위험요소 또한 감소함. 아울러 친부와 아동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조치 후 유관기관 연계를 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망과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함.

### 2. 종결사유 및 소견

본 사례에 대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를 통해 아동의 정신질환적 문제에 따른 위험요소를 제외한 보호자, 학대행위자 등의 위험요소 감소시켜 사례를 종결함. 아동의 정신질환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약물, 심리치료를 진행하며 동시에 친부에 대한 부모상담, 교육도 병행하고자 함.

## Ⅶ. 사후관리

2013년 7월 23일 사례종결 이후, 아동담당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아동의 현재 및 향후 진료와 돌봄의 계획에 대해 자문을 구한 뒤, 무한돌봄센터에 아동의 전담사례관리를 요청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함.

아동은 지속적으로 병원의래진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반복적인 자해에 대해 충동조절을 하고 있으며 학원비지원, 직업전문학교 등록금지원 등을 통해 교육적부분의 지원을 하고 있음. 친부에게 양육상담을 지속하는 한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아동가정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VIII

평가 및 제언

본 사례는 친부의 무관심, 함께 동거하지 않는 동거녀의 지속적인 정서학대, 물리적·의료적·교육적 방임학대로 인해 피해아동들의 장기간 병원치료, 후유증, 자매들 간의 갈등 및 가족기능의 단절 상태로 개입의 어려움이 있던 사례임.

하지만 지역 내 유관기관들의 통합사례회의, 솔루션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하며 각 기관의 역할분담, 아동가정에 대한 논의 및 진행사항을 공유하여 아동가정에 중복되지 않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또한 아동의 개별욕구에 의거한 치료와 돌봄의 계획을 세워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조정과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아동들의 치료와 보호체계를 구축 할 수 있었음.

한편 사례진행 중 세자매의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에 아쉬움이 남으며 아동학대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는지 느꼈으며 건강한 가족의 역할과 기능, 아동학대의 예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었음.



사례 04

아동학대  
사례개입

삶의 희망을 갖게한 따스한 관심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요약

본 사례는 친부에 의한 정서학대가 의심되어 2012년 8월 16일 신고 된 사례로, 친부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가 가정 내 주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여 주민센터와 역할을 분담해 사례 관리함. 친부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연계를 통해 자활근로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아동에 대해서는 심리검사 및 언어치료 제공하였고 사례지원금 50만원으로 아동이 태권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상담 및 관찰 진행함.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친부가 삶의 의지를 되찾았고 위험사정척도점수가 감소하여 사례 종결함. 이후 사후관리로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진행하였으며 본 기관에서 진행한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에 친부가 참여하였음. 최근 멘토링을 시작했으며 지역 자원 활용하여 모니터링 중임.

키워드

한부모 가정, 아동심리치료, 학대행위자치료, 사례지원금, 지역자활센터

## I. 개요

아동	남아(5세)	학대행위자	친부(50세)
사례관리기간	2012년 8월 16일 ~ 2013년 3월 20일		
학 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조치 결과	초기	피해아동 : 원가정보호	학대행위자 : 지속관찰
	최종	피해아동 : 원가정보호	학대행위자 : 지속관찰
주요협력/연계기관	주민센터, 지역사회활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장		

## II. 신고접수

2012년 8월 16일, 아동의 친부가 술을 마신 채 주민센터에 찾아와 아동을 죽이고 본인도 죽겠다는 발언을 하여, 아동의 안전이 걱정 된다며 본 기관에 연락함. 아동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 접수함.

## III. 현장조사

### 1. 주민센터

- 가정방문 직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변인 조사 실시함.
-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신고 당일, 친부가 술을 마시고 주민센터에 찾아와 하소연을 했다고 함.

- 친부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며 아이를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했다고 함.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친부는 평소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주민센터에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쑥스러워 하는 편이었다고 함. 담당자는 평소 친부의 성격과 너무 다른 행동에 당황했으며 혹시나 친부가 아동에게 해를 가할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함.
- 친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아동과 둘이 거주한다고 함. 아동의 친모는 조선족으로 국적을 취득한지 얼마 안 되어서 가출하였으며 현재는 이혼 상태임.

### 2. 친부(학대행위자)

- 가정방문 시 친부는 집 문 앞에 앉아 골목을 바라보고 있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는 술이 깬 상태였음.
- 친부는 이번 겨울 5일간 일을 나가서 50만원을 벌었으나 술을 마시는데 며칠 만에 거의 다 써버렸다고 함.
- 아동의 친모가 자신과 결혼한 이유는 국적취득 만을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이 거지꼴이 되었다며 힘들다고 함. 친부는 친모의 가출 이후 아동에게 친모의 욕을 하며 괜한 화풀이를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함.
- 친부는 자신이 술을 마실 때 아동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점은 아동에게 미안하다고 함. 그러나 요즘은 일도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동과의 동반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함.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친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함.
- 친부는 상담원과 주민센터 직원에게 자신의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도와달라고 함. 친부는 자신이 일을 해야 할 때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며 일이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함. 친부는 한 쪽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글씨를 많이 써야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임.

### 3. 아동

- 아동은 또래보다 약간 키가 큰 편이었고 가정방문 당시 집 앞 골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음. 아동에게 인사를 하자 친근하게 상담원들에게 말을 걸고 함께 놀이를 유도하는 등의 행동을 보임.

- 아동은 상담 중 친부에게 안겨 어깨를 주물러주다가 상담원들에게 '아빠 아파.' 라고 함. 아빠가 어디 아픈지 묻자 '술 마셔서 아파.' 라고 대답함. 아동은 친부가 술 마시느라 50만원 썼다는 이야기를 하자 '술 마시면 안 돼.' 라고 말하며 친부에게 매달리며 옷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함. 상담원이 아동에게 아빠가 술을 자주 마시는 지 묻자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빠가 술을 마신 후 어떻게 하는지 묻자 고개를 도리도리 하는 모습을 보임. 아동에게 친부에 대해 다시 물었으나 아동은 탄침을 부리며 대답하지 않으려고 함.

## IV. 사례판정

현장조사를 통해 친부가 친모의 가출 이후 사소한 이유로 아동에게 화풀이를 한 적이 있으며, 실적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고 아동에게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함.

이에 친부에 의한 정서학대(언어적 폭력행위, 공포분위기 조성)로 판정함.

## V. 사정 및 사례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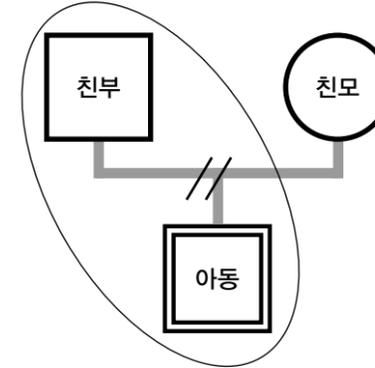
### 1. 사정

#### 1) 피해아동의 가족관계 및 가족력

##### ① 가족관계

아동과의 관계	성별	연령	직업/학교	비고
친부	남	50	일용직	
친모	여	42	파악안됨	비동거(가출 후 이혼)
아동	남	5	유치원재학	

#### ② 가계도 및 가족력



##### ○ 친부

- 친부는 소심한 성격이나 술을 마시면 혼자 욕을 하거나 평소보다 거칠어짐. 친부는 왕래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전혀 없으며 아동의 친모가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음. 친부는 자신이 술을 마실 때 아동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점은 아동에게 미안하다고 함. 그러나 힘이 들 때는 아동과의 동반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함. 친부는 한 쪽 눈이 실명상태임.

##### ○ 친모

- 친모는 조선족으로 친부와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얼마 후 가출했다고 함. 현재는 이혼 상태이며 혼인 당시 친부와 자주 다투었다고 함. 친모와 면담한 적 없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력 파악 불가함. 1년에 한 번 정도 아동을 찾아와 아동을 만나고 갈 때가 있다고 함.

##### ○ 아동

- 아동은 친부의 감정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친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 이러한 감정은 친부가 아동에게 '엄마는 나쁜 사람이다.' 는 이야기를 자주 했던 이유인 것으로 보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성실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친부 외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주위에 없음.

#### 2) 위험사정

- 아동 : 친부 외에 보호자 역할을 할 성인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친부에 의한 학대상황 발생 시 발견 및 대응이 어려움. 또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제외한 사회적 관계망이 없는 것으로 보임. 친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소가 없었음.

- 학대행위자 : 친모의 가출로 인한 이혼, 이웃과의 불화 등으로 세상에 대한 배신감이 큼. 스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죽음을 자주 언급함.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한 쪽 눈이 보이지 않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의 한계가 있음.

- 부모 또는 가족 : 친부의 거부로 인해 아동 친모 만나지 못해 위협요인 파악안됨.

### 3) 강점사정

- 아동 :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호기심이 많음. 밝은 성격이며 자립심이 강함. 낯을 거의 가리지 않으며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에 적극적임.

- 학대행위자 : 아동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온순한 성격임. 또한 정기적인 일을 할 때에는 평일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음주량 및 횟수를 스스로 조절 가능함. 외부기관의 개입에 협조적임.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 아동을 꾸준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보내려고 함.

- 부모 또는 가족 : 친부의 말에 따르면 친모가 1년에 1회 정도는 아동을 보러온다고 함.

### 4) 욕구사정

- 아동 : 친부의 금주와 취업을 원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이 필요함. 발달단계에 적합한 양육방법에 의한 양육이 필요하며, 친모의 부재를 대신한 성인 보호자 역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학대행위자 : 정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며, 친모의 부재 및 친부의 음주로 인한 아동의 상처를 본 기관의 개입을 통해 치유해주기를 바람.

- 부모 또는 가족 : 친부의 거부로 인해 아동 친모 만나지 못해 욕구 파악안됨.

## 2. 개입목표 및 계획

### 1) 개입목표

- 본 기관과 주민센터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각각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학대피해후유증 감소를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며,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해 친부에게 정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원가정 내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

### 2) 개입계획

#### ① 단기계획

- 피해아동 : 주변 자원(어린이집,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으로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 된 후 심리검사 제공하여 필요 시 심리치료 제공함.

- 학대행위자 : 유관기관(주민센터 및 지역사회활센터) 연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관찰함.

#### ② 중장기계획

- 피해아동 : 심리치료 진행하여 학대피해 후유증을 감소시키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 제공함. 또한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학대행위자 : 본 기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올바른 양육 방법 전달하며 가정 방문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의 의지 잃지 않도록 격려함.

### 3. 개입과정

#### 1) 초기단계

라포형성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정방문하여 식료품 등을 지원함. 주민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친부를 연계해주어 친부가 자활근로를 시작하게 됨. 지역 내 노인복지회관을 청소하는 일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하루 2~3만원의 급료를 받게 되었음. 또한 친부에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안내하고,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함.

친부의 동의하에 2012년 10월 17일, 본 기관에서 아동 심리검사 진행함. 이를 통해 아동이 친부에 대한 양가감정 및 높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전문가 소견 하에 언어치료 및 정서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친부에게 전달함. 친부는 아동의 심리치료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언어치료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됨.

#### 2) 중기단계

2012년 10월 29일부터 주 1회의 언어치료가 진행됨. 이 때 상담원이 아동의 어린이집으로 매주 아동을 데리러가며 어린이집 통해 아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됨. 동시에 아동 관찰 및 상담도 진행하며 쌀이나 아동도서 등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함.

아동의 연령이 만 5세가 되어 다니던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입학하게 됨. 이에 유치원에 본 기관을 소개하고 아동 심리치료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후 모니터링을 요청함.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에 다닐 때에 비해 일찍 하원하게 되었고, 이에 방과 후 시간에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 시간에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하였음. 이 때 친부 및 아동과 가족상담 진행하였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태권도장 연계를 추진하기로 함.

친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깊은 라포가 형성되었으며 자활근로 이후 술을 마시는 횟수가 상당히 감소함. 친부는 아동 양육과 관련한 일은 친부가 상담원과 우선적으로 상담하려는 모습이 보임.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깊은 신뢰를 보이며 전적인 협조를 약속함.

#### 3) 종결 전 단계

2013년 2월경, 법인 내 월 정기접수 사례지원금 50만원을 신청하였고 2013년 3월 12일 사례지원금이 입금되어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태권도 학원에 아동을 연계함. 본 기관이 월 5만원씩 10개월간의 비용 50만원을 일시납하고, 친부가 월 4만원씩 분납 지불하여 아동이 10개월 간 유치원 하원 후 태권도 학원 이용하기로 함.

태권도 학원에 아동에 대해 본 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임을 설명하자 아동의 태권도복 지원 및 원비 할인(월 10만원 9만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아동 및 친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약속하였음.

2013년 2월 18일, 언어치료 관련하여 중간평가(PRES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이 또래수준의 정상발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2013년 3월 25일, 약 5개월 간 제공된 언어치료를 종결하며 치료사와의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음. 이후 아동에게 정서치료(놀이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이 있어 아동에게 놀이치료 진행하는 것에 대해 친부와 논의함. 친부는 이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반응하며 자신과 아동이 언어치료가 끝난 것에 아쉬움이 컸다며 놀이치료 진행에 동의함.

주민센터 및 유치원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한 결과 친부의 음주량 및 횟수가 초기 개입 당시보다 감소한 부분과 성실하게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을 주변인들이 진술하고 있으며, 아동 역시 유치원에 성실하게 출석하며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게 됨.

## VI. 사례종결

### 1. 사례개입 평가

친부가 자활근로를 시작한 후 거의 매일 마시던 술을 주1~2회 정도 마시는 정도로 음주량이 감소하여 아동과 친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었음.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여 학대피해후유증을 감소시켰으며 상담원과의 주 1회 이상 만남을 통해 아동에게 어린이집 외의 사회적 관계망으로써의 역할을 함. 또한 사례지원금을 제공하여 아동에게 또 하나의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해주었으며 방과 후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을 사전에 감소시켜 또 다른 학대위험 상황을 예방하였

음.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가 본 기관의 개입 이후 아동의 불안감 및 예민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본 사례의 개입목표 및 평가를 정리하여 아래 표에 작성하였음.

대 상	목 표	사례개입 평가
피해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검사 및 심리치료</li> <li>모니터링 및 서비스연계</li> <li>아동상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본 기관 내에서 심리검사, 심리치료 진행</li> <li>모니터링 및 연계 : OO어린이집, OO유치원을 통해 재학대 발생여부 모니터링 진행하고 OO태권도장 연계</li> <li>아동상담 : 주 1회 치료 진행 시 아동 상담 진행하여 정서적지지 제공</li> </ul>
학대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 일자리 지원</li> <li>경제적 지원</li> <li>부모상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 지원 : 지역자활센터 통한 자활근로 연계</li> <li>경제적 지원 : 생필품 제공 및 50만원의 사례지원금 지원</li> <li>부모상담 : 본 기관 내에서 상담 및 학대행위자 치료 진행하여 양육태도 개선 및 정서적지지 제공</li> </ul>

## 2. 종결사유 및 소견

친부와 아동이 서로에 대한 애착이 크고, 친부가 아동과의 동반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것은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이었음을 파악하여 아동을 원가정 내에서 보호하며 사례 개입하였음.

주민센터 통해 친부를 지역자활센터에 연계하였고 이 곳에서 친부가 자활근로를 시작하게 되어 친부의 알코올 문제가 개선이 되었으며 월 50만원 이상의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여 가정 내 경제상황이 좋아진 것을 확인함. 이에 따라 친부의 스트레스 요인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본 기관에서는 아동의 학대피해후유증 감소를 위해 심리검사 지원하였고 언어치료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언어치료 진행함.

또한 정기적인 가정방문 진행 시 친부와 적절한 양육법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생필품, 아동 도서 등을 지원하였음. 주1회 이상 아동과의 만남을 통해 재학대 발생 여부 모니터링 하였고, 아동과 친부에게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

이에 위험사정척도가 11점에서 6점으로 감소하여 사례종결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종결 심의 당시 아동이 본 기관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추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놀이치료가 제공될 예정이었음. 친부는 본 기관의 개입에 매우 협조적인 편으로 이후 사후관리에도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례를 종결하였음.

## VII.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 대상으로 주 1회의 놀이치료 진행하며 태권도장 및 유치원을 통해 모니터링 계획함. 또한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제공하여 아동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계획하였음. 이에 따라 2013년 4월 2일부터 본 기관에서 놀이치료 제공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임.

2013년 9월 16일부터 본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아동이 이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2회기의 활동을 마침. 추후 6개월 간 주 1~2회의 멘토링 활동이 진행될 예정임.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 및 가정방문, 경제적 지원 등을 계획한 바 있음. 친부에 대해 본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친부는 2013년 5월 4일, 5월 11일 이틀 간 10회기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아동의 유치원 생활 및 치료 진행 과정에 대해 친부와 지속적인 상담 진행 중에 있으며 명절 및 아동의 생일 등에 가정방문 하여 경제적 지원 중임.

## VIII. 평가 및 제언

본 사례는 신고접수 당시 친부의 동반자살 언급으로 인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되었고, 신고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격리보호를 요청하는 상황이었음. 상담원도 역시 현장조사를 가는 동안 머릿속에 험악한 인상의 학대행위자와의 설전을 예상하였고, 잠정적으로 아동 일시보호조치를 계획하고 가정에 들어가게 되었음.

그러나 학대행위자인 친부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좌절한 가장의 모습이었고 그의 눈물에서 아동에 대한 사랑을 보았을 때, 상담원은 아동의 친부를 한 번 믿고 함께 다시 노력해보기를 계획하였음.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로 버티며 근근이 살아가는 친부에게 본 기관의 개입은



가정의 변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함.

친부는 본 기관의 개입 이후 삶의 희망을 찾았다며 상담원과의 만남에서 늘 ‘고맙습니다. 덕분에입니다.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라는 말을 하여 상담원이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게 하였음.

그러나 본 사례 개입 시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존재했으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아쉽게 느껴졌음. 특히,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모 및 가족이 주변에 없는 경우에 지역사회 내 연계 가능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보임.

아동의 친부가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의 일인데, 치료사가 친부에게 ‘살아갈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냐’고 물었다고 함. 이 때 친부는 담당 상담원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했다고 함. 친부는 ‘OOO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부탁하고 싶다. 날 믿어주고 우리 아이를 진정으로 아껴준 유일한 사람이다.’ 고 이야기했다고 함.

사실 본 사례 가정에 눈에 보이는 지원을 해준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함. 그러나 단순한 자원의 제공보다 한 마디의 따뜻한 말과 관심이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사례관리를 할 때 이러한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 사례를 우수사례로 추천하였음.



# 사례 05

아동학대  
사례개입

## “너의 손을 놓지 않을게”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 요약

폐결핵과 알콜의존증인 아동친부, 양육의지가 부족한 아동계모에게 방치된 채 잦은 가출을 하는 지적장애2급의 아동에 대해 안전한 보호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됨. 아동은 가출 후 교회에서 알게 된 김민수(가명, 46)의 집을 드나들며 성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었음. 1차 신고 시 학교, 경찰,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성학대 피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아동이 성학대사실을 부인함. 1차 신고 후 아동친부는 입원조치, 아동계모는 자활근로 및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대요인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2차 신고 시 김민수가 아동에게 용돈, 선물,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주며 아동을 유혹하여 주 2~3회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됨. 본 기관에서는 아동을 일시보호하였으나 아동은 김민수에게 애정을 느껴 일시보호시설에서 지속적인 탈출을 시도함. 이에 유관기관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현재 아동은 정신과 진료 후 입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장기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키워드

방임, 가출, 지적장애, 성학대

## I. 개요

아동	여아(16세)	학대행위자	1. 친부(50세) 2. 계모(50세) 3. 김민수(가명, 이웃, 46세)
사례관리기간	2013년 4월 10일 ~ 현재진행중 사례		
학 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조치 결과	초기	피해아동 : 일시보호	학대행위자 1 : 지속관찰 및 입원 학대행위자 2 : 지속관찰 학대행위자 3 : 고소, 고발
	최종	피해아동 : 입원	학대행위자 1 : 지속관찰 및 입원 학대행위자 2 : 지속관찰 학대행위자 3 : 고소, 고발
주요협력/연계기관	OO시청, OO고등학교, OO성폭력상담소, OO경찰청		

## II. 신고접수

### 1. 1차 신고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아동이 가출을 하여 성학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잘 찾지 않거나 아동을 찾는 데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함.
- 아동이 교회에서 알게 된 김민수(46)로부터의 성학대가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함.
- 아동이 가출하여 소재가 불분명하며, OO파출소에 가출신고가 되어 있었음.
- 아동은 아동계모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아는 언니네에 있다고 말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음.

- 아동계모가 김민수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아동과 함께 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 아동은 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며 가출 후 무단결석중이라고 함.
- 아동의 가족은 현재 OO시청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이며 2013년 4월 10일(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됨.

## 2. 재신고

- 김민수가 가출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선물, 용돈 등을 제공하며 주 2~3회의 성관계를 가진다고 함.
- 1차 신고 및 개입 후 원가정복귀한 아동이 가출하여 김민수의 집에 있는 것을 OO경찰서에서 발견하고 본 기관에 인계하고자 하며, 아동의 일시보호를 요청하였음.
- 아동은 김민수가 용돈을 주거나 옷, 신발 등을 사주었고, 주 2~3회 성관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음.

## III. 현장조사

### 1. 1차 신고 및 개입

1) 1차 현장조사 : 2013. 4. 11. 11:20~2013. 4. 11. 17:40

#### ① 아동친부, 아동계모 상담

- 아동친부는 아동의 친모와 이혼 후 아동계모와 동거, 아동 이복동생을 출산하였다고 함.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임.
- 아동은 2004년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음.
- 아동친부는 폐결핵과 알콜의존증, 아동계모는 근로능력부족으로 현재 무직이며 2013년 4월 10일 수급자로 선정됨.

- 아동계모에 의하면 아동친부는 음주상태에서 아동계모, 아동, 아동 이복동생에게 폭언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함.
- 아동계모는 아동이복동생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임.
- 아동은 2012년 겨울방학부터 가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아동이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 가출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함.
- 아동은 가출 시 교회에서 알게 된 남성인 김민수의 원룸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함.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김민수가 하반신불구라고 함.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아동이 가출하게 되면 김민수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성학대의 위협에 놓여 있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거나 가출신고를 하지 않음.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아동에 대해 ‘감당이 안된다’는 말을 하며 본 기관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요청함.

② OO시청 통합사례관리요원 상담

- 아동가정은 2013년 1월부터 OO시청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였으며 현재 사례관리진행중이라고 함.
- 아동이 가출하기 시작하면서 김민수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동의 성학대피해가 우려되어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김민수에 의한 성학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함.
- OO시청은 아동가정의 수급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입을 할 것이며, 본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사항에 대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함.

③ OO고등학교 인성부장 상담

- 고등학교에서는 OO파출소를 통해 아동이 김민수와 동거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함.
- OO고등학교에서는 아동의 성학대피해를 우려하여 OO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성학대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함.
- 아동은 OO성폭력상담소 상담 후 무단결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함.
- OO고등학교에서는 아동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학대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함.
- 아동의 가출 사실을 알고도 아동친부, 아동계모가 가출신고를 하지 않아 OO고등학교에서 아동

- 계모를 설득하여 아동의 가출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함.
- OO고등학교는 아동이 학습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나 지적장애 2급으로 보이지 않고 일반학생들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함.
- OO고등학교에서는 아동이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음.

④ OO파출소 소장 상담

- OO파출소는 2013년 4월 5일 아동의 가출신고를 받았다고 함.
- OO파출소는 아동가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인다고 함.
- OO파출소는 아동이 김민수로부터 성학대를 당하지 않았어도 지적장애2급인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 OO파출소는 김민수의 집에 찾아가 아동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김민수에게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함.
- OO파출소는 아동의 소재가 파악 되는대로 본 기관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를 원함.

⑤ 아동이복동생 상담

- 아동은 1차 현장조사 당시 가출상태였고, 아동이복동생에 대한 상담을 먼저 실시함.
- 아동이복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나 무호적 상태였음.
- 아동이복동생은 자신이 무호적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아동이복동생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었음.
- 아동이복동생은 아동이 가출을 할 때 아동친부, 아동계모가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고 함.
- 아동이복동생은 아동친부가 주 1회정도 술을 마시는데, 음주상태에서 아동계모, 아동, 아동이복동생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무섭다고 함.
- 아동이복동생은 아동친부가 술을 마시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때, 아동계모와 함께 집 밖으로 피신해 있기도 한다고 함.
- 아동이복동생은 아동친부가 무서워서 함께 생활하기 싫지만 아동계모와는 함께 생활하고 싶다고 함.

2) 2차 현장조사 : 2013. 4. 12. 20:30~2013. 4. 12. 23:30

① 아동 상담

- 아동은 신고 당시 가출을 한 상태였으나 1차 현장조사 후 ○○파출소에서 아동을 발견하여 본 기관에 인계됨.
- 아동은 귀가를 거부하였고, 본 기관에 일시보호를 요청하여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로 응급 격리조치함.
- 아동은 김민수의 집에서 지내며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김민수의 몸이 불편해서 설거지를 해주었다고 함.
- 아동은 2012년 겨울부터 가출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아동친부가 술을 자주 마시고 힘들게 하고 용돈을 주지 않으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어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함.
- 아동은 처음에 가출을 하여 아는 언니 집에서 지냈다고 상담원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함.
- 아동은 김민수를 교회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며 김민수에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함.
- 아동은 김민수가 밥도 잘 사주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며 등을 토닥겨준 적은 있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함.
- 아동은 상담 중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않거나 계속 눈물을 흘리며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함.

2. 재신고

1) 현장조사 일시 : 2013. 5. 9. 20:30~22:00

① 아동, 아동계모 상담

- 1차 신고 시 아동은 김민수에 의한 성학대피해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차 신고 시 김민수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 진술함.
- 아동은 일시보호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원가정복귀 후 재가출하였음.
- 2013년 5월 9일 ○○경찰서에서 아동을 발견하여 본 기관에 재신고됨.
- 아동은 2012년 겨울방학부터 가출 후 김민수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김민수와 주 2~3회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함.
- 김민수는 가출을 하여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 선물을 제공하며

지적장애 2급인 아동을 유혹하였던 것으로 확인 됨.

- 아동은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되는 것에 대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며 눈물을 흘림.
- 상담원은 아동의 안전 및 성학대 재피해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격리보호임을 안내하며 아동을 수차례 설득함.
- 아동은 끝까지 일시보호되는 것에 대해 거부적인 반응을 보임.
- 아동계모는 ‘감당이 안된다’는 말을 하며 아동이복동생의 일시보호도 함께 요청함.
- 아동과 아동이복동생을 일시보호조치하기로 함.
- 아동은 김민수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고 경찰의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했지만, 김민수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함.

IV. 사례판정

1. 1차 신고 및 개입

1) 사례판정

스크리닝척도 및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서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함.

① 정서학대

- 아동친부는 주 1회정도 음주상태에서 아동에게 폭언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음.

② 방임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아동이 가출을 반복하고 성학대가 의심되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동을 찾지 않음.

\* 1차 신고 시 학교, 성폭력상담소, 경찰서와 연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동에 대한 김민수의 성학대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1차 신고는 일반사례로 판정함.

## 2. 재신고

### 1) 사례판정

- 스크리닝척도 및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서학대 및 방임으로 판정함.

#### ① 성학대

- 김민수는 지적장애 2급인 아동에게 숙식, 용돈, 선물 등을 제공하며 아동을 유혹하여 아동에 대한 성기삽입 등 성학대 행위를 함.

## IV. 사례판정

### 1.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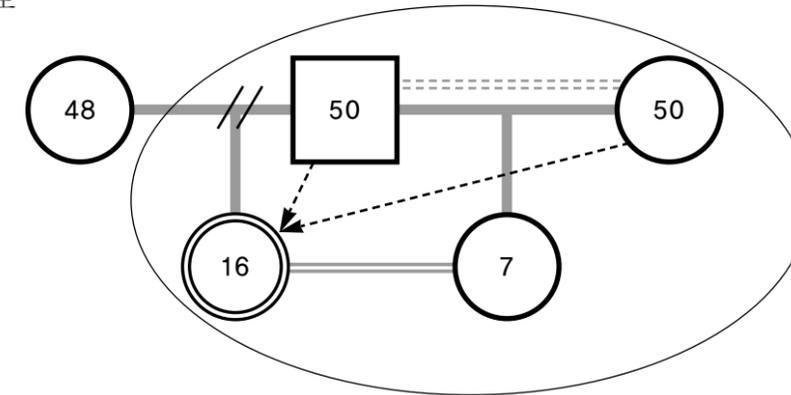
#### 1) 피해아동의 가족관계 및 가족력

##### ① 가족관계

아동과의 관계	성별	연령	직업/학교	비고
친부	남	만50세	무직	알콜의존
계모	여	만50세	무직	-
아동	여	만16세	OO고등학교 2학년	지적장애2급
이복동생	여	만7세	OO초등학교 1학년	무호적
친모	여	만48세	-	-

#### ② 가계도 및 가족력

##### ▷ 가계도



##### ▷ 가족력

#### ○ 아동친부

- 아동친부는 아동친모와 이혼 후 아동계모와 동거하기 시작함.
- 아동친부는 2010년 폐결핵 진단을 받음.
- 아동친부는 알콜의존증세가 있으며 주 1회 이상 음주를 함.
- 아동친부는 근로능력부족으로 무직상태이며 2013년 4월 10일 수급자로 선정됨.
- 아동친부는 아동양육의지가 부족함.

#### ○ 아동계모

- 아동계모는 전남편과 혼인상태에 있으며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아동 이복동생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음.
- 아동계모는 근로능력부족으로 무직상태이며 2013년 4월 10일 수급자로 선정됨.
- 아동계모는 아동양육의지가 부족함.
- 아동계모는 목수술을 받아 음식을 씹어삼키는 것이 어려움.

#### ○ 아동

- 아동은 2004년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음.
- 아동은 학습능력이 매우 떨어짐.
- 아동은 가정에서의 방치로 가출을 자주 하고 있으며 성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아동은 성이나 학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 아동이복동생

- 아동이복동생은 무호적 상태임.

2) 위험사정

○ 아동친부 / 아동계모

- 아동친부는 알콜의존증세를 가지고 있으며 음주상태에서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학대나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아동의 낮은 지적능력과 기질에 맞는 양육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 아동친부는 폐결핵을 앓고 있어 아동을 양육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아동친부, 아동계모 모두 무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동

- 아동은 지적장애 2급을 가지고 있음.
- 아동은 학대나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 아동은 아동친부, 아동계모에게 방치되어 가출을 하고 학교에 가지 않아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잦음.
- 아동은 가정에서 방치되었던 것과는 달리 김민수가 숙식, 용돈, 선물 등을 제공하며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유혹되었고 김민수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
- 아동은 김민수의 성학대행위에 대해 처벌할 의사가 없음.

○ 아동이복동생

- 아동이복동생은 무호적 상태임.
- 아동이복동생은 가정에서 방치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

- 김민수는 지적장애 2급인 아동에게 숙식, 용돈, 선물 등을 제공하며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짐.
- 김민수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이용함.

3) 강점사정

○ 아동친부 / 아동계모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자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아동계모는 아동친부의 알콜의존증세에 대해 치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

○ 아동

- 아동은 지적장애 2급이지만 있지만 일반 아동들과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여서 사회성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아동은 성학대 피해에 대해 경찰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
- 아동의 학교, 관할지역 행정기관, 상담소, 경찰 등 아동에 대한 재학대방지 및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자원이 마련되어 있음.

○ 아동이복동생

- 아동이복동생은 가정 및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

○ 학대행위자

- 김민수는 장애아동에 대해 성학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있음.

4) 욕구사정

○ 아동친부 / 아동계모

- 아동친부, 아동계모는 아동이 가출을 하여 성학대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에서 보호해 주기를 원함.

○ 아동

- 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함.

○ 아동이복동생

- 아동이복동생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기를 원함.

## 2. 개입목표 및 계획

### 1) 개입목표

① 1차 신고 및 개입

-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입소 및 기타 보호방안을 마련함.
- 아동 친부의 알콜의존문제를 해결하여 아동의 가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아동 계모의 자활을 도모하고 올바른 아동양육방법 습득 및 양육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

② 재신고

- 아동을 김민수로부터 격리보호하며 성학대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입소 및 기타 보호방안을 마련함.

### 2) 개입계획

① 단기계획

▷ 1차 신고 및 개입

-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아동 친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 연계
- 아동 계모의 자활 및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올바른양육방법 교육

▷ 재신고

-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혐의로 김민수 고소 고발 조치
-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
- 성학대피해 후유증에 대한 정신과 진료 지원

② 중장기계획

▷ 1차 신고 및 개입

- 아동에 대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 시설입소 / 원가정보호 / 기타보호방안마련
- 관할 행정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

▷ 재신고

- 성폭력혐의로 김민수 처벌 및 아동과의 격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아동에 대한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 시설입소 / 원가정보호 / 기타보호방안마련

## 3. 개입과정

### 1) 초기단계

① 아동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2013. 4. 12~2013. 4. 18)

- 아동은 아동 친부, 계모에 의한 방임으로 잦은 가출을 하였고, 귀가 의사가 없어 본 기관 부설 공동생활가정에 일시보호조치함.
- 아동의 일시보호기간동안 상담, 정서지원, 일상생활훈련,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아동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탈출을 시도함.
- 아동이 지속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며 귀가를 위하여 아동 계모의 동의 하에 아동을 원가정복귀 시킴.

② 아동 심리검사 제공 (2013. 4. 17)

- 아동의 현재 지능과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개입방안 마련 및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고 자 심리검사를 실시함.

③ 아동 상담서비스 제공

- 아동의 일시보호기간동안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

④ 아동친부의 재학대여부 모니터링 및 알콜전문병원 입원

(2013. 4. 12~2013. 4. 17)

- 아동 계모를 통하여 아동 친부의 알콜의존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아동 친부가 음주상태에서 기물파손 및 폭언하는 강도가 점점 심해져 아동 계모의 동의하에 아동 친부의 알콜전문병원 입원이 이루어짐.

⑤ 아동계모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올바른양육방법 교육

- 양육의지가 부족한 아동계모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함.
-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올바른양육방법을 교육함.
- 행정기관 연계에 따른 아동 계모의 자활근로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지지, 격려함.

2) 중기단계

① 성학대피해에 따른 일시보호서비스 제공

(2013. 5. 9~2013. 6. 27)

- 아동은 원가정복귀 후 아동 친부, 계모에 의한 방임으로 재가출 하였고 가출신고된 아동을 2013년 5월 9일 경찰서에서 아동을 발견하여 본 기관에 신고, 인계함.
- 아동에 대해 김민수가 성학대한 사실을 확인, 법률지원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본 기관에 일시보호조치함.
- 아동의 일시보호기간동안 상담, 정서지원, 일상생활훈련,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② 아동 법률지원 : 김민수 고소 고발 (2013. 5. 12)

- 김민수의 성폭력혐의에 대한 고소 및 진술녹화를 실시함.
- 연계기관 : OO성폭력상담소, 윈스톱지원센터
- 2013년 9월 현재 경찰수사 종료 및 검찰에 송치된 상황임.

③ 유관기관 사례회의 실시 (2013. 6. 13)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본 기관의 일시보호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으나, 아동은 지적장애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쉼터에서 지속적인 탈출을 시도함.

- 아동의 가출 시, 성학대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고 이에 본 기관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사례회의를 개최함.
- 아동의 원가정복귀, 정신과 진료, 시설 입소 등의 방안이 제시됨.
- 각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실시하기로 함.
- 참여 유관기관 : OO시청, OO성폭력상담소, 경찰청 성폭력수사대

④ 아동 의료 지원 (2013. 6. 13 ~ 2013. 6. 21)

- 아동의 성학대피해에 따른 산부인과 진료를 지원함(연계기관 : 윈스톱지원센터).
- 아동에 대한 지지체계의 부재, 애정결핍, 우울감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신과 진료를 지원함.
- 정신과 진료 결과 아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소아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지속적인 진료 지원이 필요한 상태였음.
-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신과 진료 후 약물복용함.

⑤ 아동 시설입소 의뢰 (2013. 6. 21)

- 아동은 일시보호중인 쉼터에서 지속적으로 가출을 시도하였고 실제로 가출을 하기도 함.
- 아동은 지적장애 2급이며 의사무능력자로 간주, 아동이 원가정복귀하고자 하는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의 성학대피해방지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시설 입소를 의뢰함.
- 아동의 관할 행정기관에 시설입소를 의뢰하였으나 아동이 가출을 자주 하는 특성과 시설입소 시 가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설입소가 보류됨.

3) 종결 전 단계

① 아동 원가정복귀 (2013. 6. 27)

- 아동은 일시보호중인 쉼터에서 지속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시설입소를 진행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을 원가정복귀 조치함.

② 아동 입원

- 아동은 성학대피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가정복귀 후 재가출 하였음.
- 아동은 가족에게 애착을 갖지 못하고 아동 계모의 방임으로 인해 가출을 하여 김민수의 집으로

감.

- 관할 행정기관에서 아동을 발견하여 아동에 대한 정신과 재진료를 실시 함.
- 아동은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상당한 것으로 진단되어 소아정신과 병원에 입원조치됨.
- 아동의 입원기간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VI. 평가 및 제언

- 현재 진행중인 사례임.
- 가정에서의 방임으로 인해 아동은 가출을 하였고 성학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아동친부, 아동계모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본 기관은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시보호를 하게 됨.
- 아동친부는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조치 되었고 아동계모는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활근로를 실시하면서 정서학대, 방임에 대한 위협요인들을 제거해 가고 있으며 이는 본 기관의 개입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음.
- 아동은 용돈, 선물 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성학대행위자인 김민수에게 애정을 느끼는 등 성학대피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입에 어려움이 있음.
- 학대피해로 인한 후유증의 치유 및 성학대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한 장기보호방안을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연계 및 협의가 필요할 것임.

## 2. 추천사유

- 지적장애 2급인 아동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교회에서 알게 된 김민수에게 성

- 학대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학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김민수에게 애정을 느끼는 상황이 지속되어 개입에 어려움이 많았음.
- 아동은 일시보호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였고, 아동의 계속되는 개입거부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례로 평가됨.

## 3. 향후 발전적인 개입을 위한 제언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목표로 개입방향을 설정하였음.
- 아동은 가정에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고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설에도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아동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지원하게 됨.
- 아동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을 통해 아동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며 안전한 장기보호방안을 마련 및 성학대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 및 협의가 필요할 것임.





# 사례 06

아동학대  
사례개입

## 위기의 가족과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요약

2011년 3월부터 친조부가 가정형편을 이유로 아동1과 아동2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 계속 된 학습유예로 인해 아동들의 학습능력 및 사회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음.

친부가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가족의 생계 및 결정 권한은 친조부가 가지고 있었고 친조부는 외부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며 아동들의 학습유예 기간을 연장하려고 함

본 기관 및 OO구청 사례관리팀,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친조부와 친부를 끊임없이 설득 한 끝에 아동들은 비로소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었고 가족 원들도 아동들의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음

### 키워드

교육적 방임, 위기 가족

## I. 개요

아동	아동1: 여아(12세) 아동2: 여아(8세)	학대행위자	친조부(70세)
사례관리기간	2012년 06월 15일 ~ 2012년 08월 31일		
학 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방임		
조치 결과	초기	피해아동 : 원가정보호	학대행위자 : 지속관찰
	최종	피해아동 : 원가정보호	학대행위자 : 지속관찰
주요협력/연계기관	구청 사례관리 팀,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 II. 신고접수

### ■ 신고접수일 : 2012. 06. 15.

2011년 3월부터 친조부가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신고됨.

## III. 현장조사

### ■ 1차 현장조사 : 2012. 06. 15.

#### 1. 학대정황

- 아동들은 각각 초등학교 5학년(아동1), 초등학교 2학년(아동2)에 재학중이었다고 하며 2011년 3월부터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
- 친조부는 2012년 2학기 때부터는 학교를 보내겠다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얘기했다고 하나 본 기관 상담원과의 면담에서는 2013년에 아동들을 복학시키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옴.
- 아동들의 학습유예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친조부의 아동들의 복학시기를 계속해서 늦추는 태도를 보여 아동들의 교육적방임상태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보임.

#### 2. 학대행위자(친조부)의 특성

- 친조부는 대학교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고가 고지식하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부의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고, 특히 자신의 가족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친조부는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정 형편이 나아지면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함.
- 본 기관 상담원이 아동과의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친조부는 거부적인 반응을 보임.
- 친조부는 가족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전체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였음.

### 3. 피해아동특성

- 아동들은 1년 이상 학업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친부의 생활에 따라 밤낮이 뒤바뀐 생활패턴을 하고 있었음. 상담원 방문 당시(오후 2시경) 아동들은 방문을 잠그고 자고 있다고 친조부가 전달 함.
- 구청 사례관리팀과 주민센터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였을 시 아동들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보고 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친조부에게 아동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친조부가 거절함.
- 아동 안전과 관련해서는 당시 학교 담임교사, 2011년에 면담을 진행하였던 해당 구청 공무원과 유선 연락을 통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 함.

### 4. 가족특성

- 친부는 친모와 별거중(친모는 타도시에서 거주중)이었고, 무직 상태에서 밤에 게임을 하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잔다고 함.
- 친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2012년 초에 친조부와 의 갈등상태에서 친조부를 구타하는 사건을 일으켰음(집행유예로 풀려남).
- 친조모는 치매를 앓다가 2012년 4월에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직전 2개월 가량 심각한 수준의 치매 상태를 보였다고 함.
- 친조모의 치매로 인해 가족들의 갈등 및 스트레스가 많아왔으며 큰 고모의 경우 정신병이 재발하여 입원중이었음.
- 작은 고모의 경우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하나 이에 대해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 ■ 2차 현장조사 : 2012. 06. 18.

### 1. 학대 정황 및 아동 욕구

- 아동들은 상담원 방문 당시(오후 3시경) 자고 있는 중이었으며 작은 고모가 아동들을 깨워서 면

담을 실시 함.

- 아동1의 경우 자신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상황과 밤낮이 뒤바뀐 생활패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를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 함.
- 아동은 학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학교수업의 대안으로 친조부가 사다주는 책을 조금씩 읽는 편이나 적절하게 학업을 지도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 아동들은 건강한 편이었고 다른 학대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동들은 가족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2. 친부와의 면담

-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친부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함.
- 2011년 친조부의 근로소득(90여만원)으로 7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 친조모의 치매로 인해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고 함.
- 친부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직장을 옮겨 다녔으며 현재는 무직상태였음.
- 2012년 5월 아동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권이 지정되었으나 친부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가정 내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음.
- 친부에게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교육적 방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주 고, 친모와의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한부모가정으로 정부지원을 신청 할 것을 권유함.

## IV. 사례판정

- 2011년 3월부터 아동들의 결석이 잦았으며 5월 1일부터 친조부가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음
- 학교측의 2차례에 걸친 출석 권고에도 아동들 등교시키지 않았으며 학습유예 신청을 통하여 아동들의 학업 공백상태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음.
-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며 아동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가족구성들의 사정으로 인 해 아동들의 교육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져 본 사례를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으로 판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구하여 본 사례에 적극 개입키로 함.

## V. 사정 및 사례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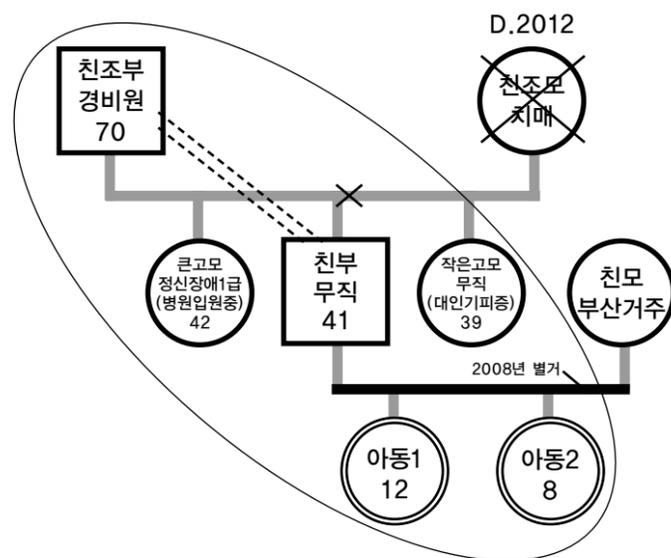
### 1. 사정

#### 1) 피해아동의 가족관계 및 가족력

##### ① 가족관계

아동과의 관계	성별	연령	직업/학교	비고
친조부	남	70	경비원	
큰 고모	여	42	무직	정신장애1급 입원중
친부	남	41	무직	
작은 고모	여	39	무직	대인기피
아동1	여	12	초등학생	2011년부터 학습유예
아동2	여	8	초등학생	2011년부터 학습유예

##### ② 가계도 및 가족력



#### 2) 위험사정

대상	내용
아동	- 장기간의 교육적 공백으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및 또래관계 미형성 - 낮과 밤이 바뀌어버린 생활 패턴
친조부	- 외부 개입에 대한 부정적 태도 견지 - 가정사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수치심을 가짐
친부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점 - 가족구성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심리적으로 불안정
가정환경	- 큰 고모가 정신질환이 있고 입원치료 중 - 경제활동은 친조부만 하고 있음

#### 3) 강점사정

대상	내용
아동	- 학교를 가고 싶은 의사를 밝힘 - 아동1의 경우, △△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좋았다고 함 - 현재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음
친조부	- 아동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음
친부	- 아동에 대한 학습 지도를 직접 했었다고 함 - 아동들이 친부를 잘 따르고 친부 역시 아동에 대한 애정이 많음
가정환경	-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가정사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가족들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함
지역사회	- 주민센터, OO구청 사례관리팀, 학교 측의 관심과 지원

#### 4) 욕구사정

대상	내용
아동	- 아동들은 복학을 하여 학업 재개를 희망함
친조부	- 아동의 복학은 희망하되 이전에 직면한 가족문제(경제적인 부분 포함)가 해결되기를 원함
친부	-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아동들이 학령에 맞게 복학을 하기를 원함 - 학령에 맞게 복학되지 않을 시 다른 학교로의 전학코자 하는 욕구가 있음

## 2. 개입목표 및 계획

### 1) 개입목표

#### (1) 아동들의 조속한 학교 복학 추진

-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아동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학문제를 지원
- 친권자인 친부를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아동 복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

#### (2) 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가정 내 스트레스 감소

- 구청 사례관리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케 함
- 작은 고모 및 친부에 대한 취업알선 및 가족구성들에 대한 심리치료 연계

### 2) 개입계획

#### ① 단기계획

- 피해아동 : 학교와 교육청의 협조를 구하여 복학을 위한 학업능력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시험을 대비하여 학습을 지원 함
- 학대행위자 : 친조부와외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교육적방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외 부개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킴

- 가족구성원 : 주민센터와 구청 사례관리팀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 및 친부에 대한 수급권 지정을 진행하여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나감

#### ② 중장기계획

- 피해아동 : 아동들이 학교에 복학한 이후 학교를 통하여 아동의 등교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청 사례관리팀과 연계하여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을 진행함
- 학대행위자 및 가족구성원 : 아동 학습과 관련한 물품들을 지원하고 작은 고모와 친부에 대한 취업알선을 위하여 구청 사례관리팀과 연계 함

## 3. 개입과정

### 1) 초기단계

#### ■ 아동복학관련 유관기관 및 가족구성들에 대한 상담 진행

- 이전 담임교사를 통하여 아동들의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감과 교장을 면담하여 아동복학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 한 뒤 해당 정보를 친조부와 친부에게 안내 함.
- 친조부와 친부는 아동복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본 기관의 개입에 대해 거부를 표시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복학을 설득 함.
- 본 기관 상담원의 지속적인 가정 방문을 진행함에 따라 친부가 아동 복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제 학령에 맞는 복학을 희망하여 친부와 학교를 방문해서 복학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 받게 함.
- 구청 사례관리팀에게 아동 복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구성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연계 해줄 것을 요청함.

#### ■ 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사례에 대한 자문을 요청

- 2012년 6월 26일, 아동 학업유예에 대한 사례판정위원들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강제적이

- 고 법적인 대응보다는 가족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아동의 복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사례를 진행토록 함.
- 가족 내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을 연계할 도모토록 함.
- 아동들이 1년 이상의 학습유예가 지속되어 제 학령에 맞는 복학이 어려울 경우 가족들이 아동들의 복학 시기를 늦춰 학습유예가 장기화 될 우려가 높아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여 학교에서 학업능력인정시험을 치른 후 제 학령에 맞게 복학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함.

### 2) 중기단계

- 사례판정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친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친부가 7월 2일에 아동들의 학업능력인정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하였고, 학습지도를 직접 하기로 하는 등, 아동 복학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학교에는 협조를 구하여 아동들이 학업능력인정시험을 치른 후 교수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아동들을 제 학령에 맞게 복학 할 수 있도록 함.
-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본 기관 및 구청 사례관리팀을 통하여 가정지원서비스와 학습문제지를 제공하여 아동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들의 학습 진행 사항을 파악함.
- 본 기관의 지속적인 유선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개입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거부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가족구성들 전체가 아동 학업 재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함.
- 친부가 학업능력인정시험을 1차례 연기하였으나 7월 9일 아동들이 학교에서 학업능력인정시험을 치른 것을 확인하였고 7월 10일부터 아동들이 등교하여 반 배정이 완료되었음을 안내 받음.
- 구청 사례관리팀을 통하여 친부와 친고모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상담기관과 연계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아동 학습과 관련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3) 종결 전 단계

- 아동 복학이 완료됨에 따라 학업에 필요한 각종 문구류를 지원하였고, 구청 사례관리팀을 통하여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요청 함.

- 아동의 등교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가정 방문을 통하여 아동의 학교 및 가정생활을 파악 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작은 고모의 재취업이 진행되었음이 확인 되었고 구청 사례관리팀에 의뢰하여 상담연계 및 가정지원서비스 등이 상시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함.

## VI. 사례종결

### 1. 사례개입 평가

- 1년 이상 학업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신속하게 아동의 복학이 이루어짐.
- 초기에 가족구성원들이 본 기관 및 유관기관의 개입을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인 방문과 유선연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들이 본 기관에 대해 협조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함.
- 학교 및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아동의 학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협조함에 따라 아동의 학업유예 장기화를 막고 친부의 욕구에 따라 제 학령에 맞게 아동의 복학이 이루어짐.

### 2. 종결사유 및 소견

- 아동의 복학이 이루어 진 뒤에 학교를 통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등교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고, 가족구성원들 역시 아동 학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
- 친조부를 비롯한 가족구성원들이 본 기관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였으며 아동들의 학업에 적극적으로 지도키로 함에 따라 구청 사례관리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요청하고 본 기관의 개입을 종결키로 함.



## VII. 사후관리

- 학교 및 가족구성원을 통하여 아동들의 등교여부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2012년 9월, 2013년 1월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들의 근황을 파악 함.
- 가정을 방문하여 친부 및 친조부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와 아동의 학업상태를 확인한 결과 아동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음이 확인됨. 초기에 본 기관 개입의 거부적이었던 가족구성원들 모두 본 기관의 개입에 만족감을 표시함.

## VIII. 평가 및 제언

- 본 사례를 가족구성원들의 이혼, 사망, 정신질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동들이 1년 이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타 다른 학대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나 가족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 아동 복학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가족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외부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 시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자원들과 연계가 필수적이었음.
- 교육적 방임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는 조항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가족구성원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임. 따라서 본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가족원들을 설득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청, 주민센터, 구청 사례관리팀을 통하여 가족 전체에 대한 개입을 진행 함.
-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통하여 1년 이상 지속되어오던 아동들의 학업유예가 3주라는 짧은 시간 내의 해결될 수 있었으며, 각종 가정지원서비스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하여 가족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아동 학업과 외부 개입에 대한 가족원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 됨.

# 사례 0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학대예방홍보 보조표지판설치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장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아동학대예방 사업으로 다양한 홍보채널 확보를 통하여 아동학대예방에 관하여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아동들에 대한 예방교육 및 신고번호 홍보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내 초등학교 100곳 중 107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동학대예방(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홍보를 위한 보조표지판 1,500개를 제작하여 반영구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아동학대신고번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동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하였다.

### 키워드

경찰협력, 어린이보호구역, 아동학대신고전화, 보조표지판, 아동학대 예방홍보



## I. 개요

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학대예방 홍보용 보조표지판 설치
사업기간	2013년 3월 ~ 2013년 9월
협력기관(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요사업내용	보조표지판 설치, 교통전광판 홍보
사업대상(클라이언트)	제주도민 전체 (초등학교 110개 중 107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도로이용 일반시민 대상)
총사업비	- 원

## II. 사업추진배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조치 및 개입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아동학대는 발생 이후 조치보다도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확보하여 되도록 많은 일반시민들에게 아동학대신고전화 및 아동학대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만7세~12세인 초등학생이 39.4%<sup>1)</sup>를 차지하고 있는 등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아동 본인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에 따라 속도 제한이 있고,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보다 더 자세히 살피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예방홍보물을 설치하였을 시 일반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음.

1)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행)

## III. 사업내용

### 1. 사업추진일정

기간	추진내용	비고
2013.03.12.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미팅을 통한 공동추진사업 기획 협의	
2013.03.19.	아동학대예방 홍보강화를 위한 기획안 제출	
2013.04.01.	아동학대 예방활동 추진계획 확정	
2013.05.	제주시내 교통단속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교통정보센터 관리 전광판 내 아동학대신고전화(1577-1391) 홍보	
2013.08.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학대신고전화(1577-1391)보조표지판형태 설치 시작	
2013.09.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학대신고전화(1577-1391)보조표지판형태 설치 완료 및 준공검사	제주도내 110개 초등학교 중 107개 학교 대상 1,500개 설치완료.

### 2. 세부사업추진 내용

단위사업명	사업추진방법	추진일정	협력기관과의 업무분담	서비스대상 (표적대상)
보조표지판 설치	기관제안에 따라 자치경찰단 내 교통정보센터 통한 사업진행	2013.03. ~2013.09.	*아동보호: 콘텐츠 개발 및 제안 *자치경찰단: 예산활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조표지판 설치진행	*제주도내 전체 110개 초등학교 중 107개 학교 대상(학생 및 교직원, 일반시민 대상)
교통전광판 홍보	기관제안에 따라 자치경찰단 내 교통정보센터 통한 사업진행	2013.03. ~2013.05.	*아동보호: 콘텐츠생산 및 제안 *자치경찰단: 제주시내 전광판 홍보진행	일반시민대상

〈설치사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 IV. 사업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발전방안)

### 1. 사업평가

-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홍보채널 확대이며,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도구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교통표지판 형태로 설치되어 일반시민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의 표지판은 매우 효과적인 홍보도구라고 판단됨. 또한, 설치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홍보수단으로 “노란리본” 및 “아동학대신고전화1577-1391”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 제주도 내 초등학교 개소수는 분교포함 총 110개소로 제주시에 65개소, 서귀포시 45개소이며,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중 아동학대예방홍보 보조표지판의 설치가 진행된 학교는 총 107개소(제주시 62개소, 서귀포시 45개소)로, 총 1,500개의 보조표지판이 설치되어 97.3%의 설치비율을 달성한 것임.
- 이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직접적인 홍보물의 설치와 지근거리 노출이 진행된 것으로 그 효과성에 있어서 향후 제주도 전역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아동학대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2. 향후 추진계획

- 현재 미설치된 3개소를 포함하여 경찰, 소방 등의 분야에서 아동의 보호 및 안전을 기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을 적극 유도하여 그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추가적인 설치를 진행하고자 함.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사업기관으로의 확대 추진.
- 설치 이후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아동학대 상황발생시 표지판을 보고 신고가능하도록 교육진행하고자 함.

- 향후 아동학대예방에 관련한 지역 및 국가차원의 연구가 진행될 시 아동학대홍보 보조표지판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함.

## V. 평가 및 제언

- 최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과 접촉이 있을 시 자치경찰단측에서는 '4대 사회악 피해자' 들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기관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기획안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표지판 형태의 아동학대홍보물(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설치가 가능하였다고 판단함.
- 기획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자치경찰단의 2013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별도의 예산사용없이 자치경찰단의 계획을 활용할 수 있었음. 또한, 자치경찰단 자체 양식에 적합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 내 자원, 특히 기관의 특성상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계가능성에 관하여 확인하는 것이 주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금번 사업의 계획과 추진은 아동학대예방홍보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전국단위로 확장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동학대예방홍보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면,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에 있어서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함.

## 수기부문

01. 너를 이해하니 너의 맘이 보이네!  
\_ 학대행위자(친모)
02. 참 나쁘지만, 참 고마운 사람들  
\_ 학대행위자(외조모)
03. 눈물  
\_ 조별 상담원(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4. 다시쓰는 희망  
\_ 피해아동
05. 나는 너의 그림자 되어 한 송이 꽃을 피우리라  
\_ 김철호 상담원(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06. 작은 추억들이 맺을 열매를 기대하며  
\_ 이창재 자원봉사자(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07. 유진아 학교가자~  
\_ 김형민 상담원(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 너를 이해하니 너의 맘이 보이네!!

### 학대행위자(친모)

2012년 2월 어느날 저녁!!

나는 한통의 전화를 다급하게 걸었다.

“저를 좀 잡아주세요! 저를 좀 데려주세요!”

이렇게 몇 번을 외치다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전화를 건 곳은 OO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다. 전화 걸기 20분전 나는 내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흥분이 가라앉고 정신을 차릴 때 쯤, 나는 엄마가 아닌 살인미수자의 모습으로 내 아들 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들은 어릴 때부터 발달이 느렸다. 단지 좀 차가운 성격의 아이 같았고, 일반적인 아이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다. 그런데 6세 쯤 되면서 엄마와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 실수가 많았고 밥을 먹을 때 마다 전쟁을 치르듯 밥상 밑이고 어디든 다니며 산만하였고 교육과 학습이 어려웠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수도꼭지로 장난을 하여 화장실을 갈 때 마다 옷이 흠뻑 젖어 나오곤 했다. 이렇게 다루기 힘든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타이르기도 하고 칭찬도 해보았다. 그러다 나도 점점 지쳐갔고 나는 내 아들의 양육을 위해 매를 들었다. 그러나 매의 횡수와 강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세어지고 아들도 심한 매질에 무뎌져 갔고 나도 자녀를 때리는 것에 감각을 잃어갔다.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시 무조건 매로 다스렸다. 그러다 결국 나는 내 아들의 목을 조르는 지경에 까지 오게 된 것이다.

내 아들을 나로 부터 지키고 싶었고, 내 인생을 절망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연락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면 새끼호랑이를 잡아먹으려는 엄마호랑이로부터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육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찾아왔다.

두 선생님이 집으로 오셨다. 나는 한편은 죄인의 모습으로 또 한편으로는 '될대로 돼라' 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상담을 시작했다. 끊임없이 내 고통을 호소했다. 그렇지만 속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다. 결국 내 잘못이라 탓하겠지!!!

출장이 잦은 남편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 돌아온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모두 엄마의 양육방법이 문제라며 모든 잘못이 엄마에게서 온 냥 방문을 닫고 게임에 열중하셨다.

남편의 방임적 학대는 엄마의 폭력적 학대를 더 악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어머니 참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질 뻔했다. 모든 걸 내 잘못으로만 떠 넘겨서 정말 내가 잘못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 고충을 헤아려 주니 그것이 내 맘속에 응어리를 씻는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7살 아들과 함께 인근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검사결과 아들은 아스퍼거에 가까운 사회성 학습장애로 나왔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자폐의 성향을 지닌 눈치 없는 아이가 바로 우리 장남이었다.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학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핑계거리가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맘이 홀가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렇게 아팠을 아이를 학대해 왔던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견딜 수 없어 잠 못 드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런 고통을 나누려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매주 마다 내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고 틈틈이 찾아와 아들에게 학용품을 전해주고 놀아주기도 했다. 아들은 그런 선생님을 종종 기다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은 내 고통을 알아주는 유일한 나의 아군이였다. 이들의 도움에 나는 더 이상 아들을 적군으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나를 고통주기위해 태어난 인물이란 생각도 접기로 했다.

결정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 집으로 가족상담사를 보내주셨다.

가족상담 내내 나는 현재의 내 모습 안에 내재 되어있는 열정이 있는 나를 발견 할 수 있었다. 가

족상담사는 한 번도 나를 나무라지도 꾸짖지도 않으시고 내 얘기를 빠짐없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내 문제점은 너무 완벽함 때문이었다. 가족상담사는 그런 말을 안해 주셨지만 나는 상담을 하면서 내 완벽함에 맞추지 못하는 부족한 내 아들을 때려왔고 그런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결국 남편을 적군으로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스스로 깨달아졌다.

상담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도 한 번씩 피식피식 웃으며 옛날의 추억에 잠기곤하는 표정이었다. 남편의 웃는 모습을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 맘이 쓰라렸다.

그리고 얼마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우리가족을 기관으로 초청하여 부모교육을 받게 해주었다.

축복의 말을 들은 물과 저주의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를 비교해주었다. 축복의 말을 들은 물은 아주 아름다운 균일한 결정체였다. 저주의 말을 들은 물은 깨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결정체로 망가졌다. 난 너무 충격을 받았다. 70%가 물인 아들의 몸과 맘이 내 악담과 폭언에 얼마나 망가졌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에 고통스러웠다.

부모교육을 마치고 수료식 때 내가 받아본 책 선물 중에서 가장 두꺼운 '아이심리백과 1,2'를 선물로 받았다. 사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고가라 망설였던 책이었다. 그리고 상품권도 한 봉투 두툼히 들어있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교육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을 때 아들이 강의실 밖에서 엄마가 좀 두려운지 다가오지는 못하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사랑스럽게 안아주었다.

그동안 아들을 이해해주지 못한 미안함과 오늘처럼 아들 덕분에 호강한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이 상품권은 너를 위해서만 쓸게.....' 하고 속삭였다.

그 다음날 우리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놀이동산에도 가게 되었다.



얼마나 오랜만의 외출인지 모르겠다. 우리부부는 우리 아들 덕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왔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린나이에 부모에게 효도하네!' 마음 한번 바뀌먹으면 이렇게 편해질 세상을 왜 진작 몰랐을까? 그 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끊임없이 내게 힘든 상황이 없는지 아들의 상태를 물으며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럴 때 마다 아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해 왔던 생각들도 조금씩 바뀌었다. 아들을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들 노력하는구나! 남편도 맘의 문을 열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놀아 주었다, 그리고 틈틈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마누라 피곤하다며 아이들을 찬물로 목욕시켜 열감기가 심하게 걸리기도 했다.

나도 아들을 위해 뉘가를 하기로 결심했다. 발달장애에 관한 책도 읽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들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했다. 모든 결과물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없었다.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면 얻어질 상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가장 큰 결심을 했는데 아들을 위해 새벽기도도 나가게 되었다. 잠이 많은 내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일을 아들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큰 현실에 부딪힐 상황이라 나는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들은 1년이 넘는 치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점점 좋은 상태로 변해 갔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미소가 아름다운 OOO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선생님은 이런 상태의 아이는 처음 맡아보지만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발전시키시려고 노력을 하셨다. 비록 학습은 어렵지만 아들도 선생님의 사랑과 헌신을 느끼고 있었다. 기도의 응답이라 믿는다. 우선은 우리아들이 학교 가는 것을 무척 즐거워하고 유치원보다 학교가 더 좋다고 하기 때문이니까!

나는 마트에서 아들과 아빠의 대화를 들었다. 아들이 주류매장을 지나가다가 "아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하고 묻자

아빠가 “사람이 술을 마시면 개가 돼!”하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나 술 마시고 예쁜 강아지가 되고 싶어!”  
 예전에는 이 대화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들리지 않았었다.  
 아들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할 때 폭력으로 저지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아들의 고통과 힘들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줘야겠다.  
 나는 내 아들을 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해하기 전에는 아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니 아들의 맘이 보인다.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도 사랑해 주어야겠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해 같이 공유 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사는 나를....!  
 아들의 치료실에서 나는 아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들을 만났다.  
 위로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남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나를 발견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편견과 남의 시선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는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다면, 어떠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와 그들을 위해 싸고 좋은 제품들을 팔았다. 그래서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언제나 무기력하고 자신감 없던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아들을 위해 뭔가 일하고 돈을 벌며 해쳐나가는 모습이 스스로 자랑스럽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나와 아들의 변화를 위해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 주었다. 내가 작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 비참한 가족관계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게 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아동학대를 하는 수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과 가족의 변화를 위해 스스로 신고하는 용기 있는 엄마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나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건 확실합니다. 어머니는 뭘 해도 멋지게 해내실 겁니다. 그런 열정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용기 있는 엄마라 했다. 용기는 어떨 때 가장 필요하지?  
 그래 이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용서를 빌자!!

아들아! 너를 이해해 주지 못해 미안해!  
 너를 아프게 해서 정말 정말 미안해!  
 이제 사랑할게! 많이 사랑할게! 너의 부족함도 안아줄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너의 엄마니까.  
 아들아! 엄마가 많이 미안하고 정말 사랑해~~!!  
 ♡♡♡♡♡♡♡♡♡♡♡♡♡♡♡♡♡♡♡♡♡♡♡♡♡♡♡♡♡♡



## 참 나쁘지만, 참 고마운 사람들

학대행위자(외조모)

저는 OO에 살고 있는 성규(가명, 5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어서 글도 모르고 살아오다 보니, 제 손으로 적을 수 있는 건 제 이름과 우리 성규 이름 세 글자 밖에는 없네요. 우리 집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성규랑 떨어져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와 지금 행복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내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염치없지만, 이렇게 선생님의 손을 빌어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린나이부터 이일 저일 다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우리 아저씨를 만나서 싸우며 부대끼며 살았지요. 딸이라고 하나 낳고 살았는데, 집안형편은 어렵지, 엄마아빠가 신경을 못써주다보니 엇나가는 것을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가출해서 한참을 연락도 없더니 스무살이나 됐을 땐가 어느 날 배가 불러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성질이 불 같은 남편은 자식 잘못키운 게 다 제 탓이라며 크게 싸우고 집안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 커버려서 병원에서 지우기도 힘들고, 그럴만한 돈도 없고 해서, 그렇게 우리 성규가 태어나게 됐어요. 성규엄마와 남편, 그리고 저 셋이서 별면 그 어린 것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며, 그렇게 키우면서 살려고 했죠. 그 웃는 모습이나 우는 모습이나 얼마나 예쁜지, 힘들게 살아온 내 인생에 선물이 하나 주어졌다고 생각할 만큼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저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나 봐요. 성규엄마는 몸도 다 풀지도 않은 채 백일도 지나지 않은 성규를 두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성규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품었던 우리 가족의 행복이 다시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깐요. 그 때쯤부터인 것 같아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 저도 옆에서 같이 마셨어요. 평소에도 술을 안 먹는 건 아니었지만, 성규를 보면서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거든요. 술을 마시고 나면 후회했지만, 그래도 그냥 속상한 마음에 남편 벗혀준다는 생각에 같이 마신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더 강해져야 하는데, 술만 많이 마시고 속만

씩이는 남편이 왜 그렇게 의지가 되던지, 젊을 때 고생한 건 생각도 안나더군요. 같이 의지하며 그렇게 성규를 키웠어요. 남편은 박스를 주우러 다니고, 저는 동사무소에서 자활일을 하면서 그렇게 다시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성규가 두 돌도 안 되었을 때 었을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손자 예쁘다고,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키우자던 남편이 그냥 그렇게 혼자만 가버린 거예요. 세상이 무너졌다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전에도 많이 겪어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리도 남편이 보고싶고, 원망스럽고 하던지. 잘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저 어린 것이랑 나랑 둘만 남겨두고 혼자만 가버린 게 왜 그리도 원망스럽던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고 나면 기분은 더 안 좋아져서 힘들고, 힘든 것 잊으려고 술을 먹고, 그렇게 울고 있는 성규는 내버려둔 채 지냈어요.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남편이 보고 싶어서 울고, 술을 먹고 나면 내 신세가 불쌍해서 울고, 성규가 불쌍해서 울고, 그렇게 한참을 보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 모양이니, 성규라고 어디 제대로 살았겠어요. 옷은 더럽고 제대로 씻기지도 못하고, 집에서 제대로 한 것이라고는 밥 먹이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상담도 여러 차례 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성규생각해서 다시 힘 내라는 이야기만 기억에 남네요. 그렇게 몇 달을 술에 빠져 살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청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술만 먹으면 성규는 어떻게 할거냐며, 도저히 이렇게는 성규를 키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들이 와서 성규를 데려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땐 우리 성규를 도둑맞는 기분이었어요. 예쁜 내 새끼를 왜 데리고 가느냐고 고함도 쳐보고 울어도 보고 사정도 해보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성규를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화가나던지.

그렇게 성규를 데리고 가서는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술을 끊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는 상담원이라며 2명이 와서는 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성규이야기, 성규엄마 이야기 다 듣고 술을 끊어야 성규를 잘 키울 수 있을 것같다고 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고 하기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도 다녀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술이 그리 쉽게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한 달 정도 안 먹고 지내봤는데, 그게 왜 그리 안 되는지, 성규를 집으로 데리고 오고 나서도 두 번 정도는 더 같은 일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들이 데리고 갔던 것 같네요.

그래도 할머니 노릇하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보니, 작년에는 집나갔던 성규엄마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세 식구가 마음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몇 달 지내다가는 또 집을 나가더군요. 속상했어요. 다시 술을 찾게 되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술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규엄마 핑계로 술을 먹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집은 쓰레기장같이 난장판이 되어있고, 성규가 또 보이지 않았어요. 울면서 시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하니 다시 보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차례나 계속 같은 일로 성규를 보호하게 되다보니 더 이상 제가 성규를 키우는 게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술을 끊지 않으면 성규가 저를 무서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술 끊게 하려고 무섭게 말하려는 것이려니 했죠. 내 새끼가 어떻게 저를 무서워 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를 듣다보니, 할머니가 무섭다고 같이 살기 싫다고 자기 발로 선생님들을 따라가던 성규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어요. 억지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선생님들을 따라가던 그 모습이 또렷하지는 않아도 기억이 났어요. 할머니가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규를 생각해서라도 꼭 술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느낌이었어요. 성규가 나를 무서워한다는 그 이야기는 너무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나 속상하다고 술 먹고 울고 하는 모습이 내 새끼에게는 무서운 모습이었다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할머니만 보면 방실방실 잘 웃고 할머니 옆에서 애교도 부리던, 할머니를 다 이해해줄 것 같았던 그 얼굴이 사실은 겁에 질린 얼굴이었던 거예요. 술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술을 계속 마시면 성규와 같이 오래 지내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새끼가 나를 무서워한다는 그 이야기가 결심을 서게 해준 것 같아요. 그간 몸을 돌보지 않은 탓인지, 치아도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술을 끊으니 가장 먼저 이빨이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먹고, 죽이나 우유 같은 것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시청에서 치과를 소개해줘서 가보니 선생님이 4개월 이상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절대 술을 먹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렇게 치과치료를 받고,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정신과병원에도 다니면서 약도 타먹고 상담도 받으면서 몇 달을 보낸 것 같아요. 성규가 매일 밤 보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성규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아동보호선생님들이 보내주는 사진보면서 안아주고 뽀뽀해줄 수 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 달 정도만에 성규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성규가 키도 많이 커있고 살도 많이 붙어서 꼭 다 큰 아이처럼 있더라고요. 말도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겹쳐져서 그날도 또 울었네요.

4개월간 치과진료를 받으면서, 이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성규를 보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갔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볼 수 있다지만, 너무 자주보면 내 결심도 흐려질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열심히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성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살도 빼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렇게 추석명절을 맞아서 성규가 다시 집으로 왔고, 단출하게 두 식구가 명절을 보내면서 성규를 안고 잠을 드는데 세상에 그런 행복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딱, 일년이 지난 것 같네요. 작년 추석에 성규를 데리고 왔으니깐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성규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원래 내 곁에 있던 것인데, 그걸 다시 찾기 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놈의 술이 먼지, 그 놈의 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고, 특히 내 새끼가 너무 힘들어했을 걸 생각하니 땅을 치며 후회해요. 눈앞에 삶의 이유를 놓고, 행복을 놓고 너무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 때는 그렇게 밉고 싫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들이 이제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정신차리게 이야기해준 것 뿐 만 아니라 내 새끼를 잘 보살펴줘서, 또, 가끔이라도 성규 좋아하는 과자 사들고 우리 두 식구 안부를 물어주는 것은 제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성규엄마가 돌아왔어요. 성규가 엄마얼굴 보고 저도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속 끊이지 않아도 되니 정말 좋네요. 행복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해준 선생님들 얘기가 정말 맞나봐요. 이제 술이라면 지긋지긋해요.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게 내 새끼 키우면서 잘 커가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기억 속에 무서운 할머니의 모습은 지우고 성규엄마랑 같이 우리 성규 건강하게 키워서 꼭 은혜 갚을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 아동 조모가 문맹임에 따라 직접 작성이 힘들어 인터뷰를 통해 담당 상담원이 대필하였습니다.



# 눈 물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 별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서는 ‘눈 물’이다. 나도 물론 그러했고 내 동료들을 보았을 때도 종종 눈물을 흘릴 경우가 있었다. 때로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다. 대상자들을 만나면 상담원에게 눈물을 보이며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것이다. 그 눈물을 본 우리 상담원들은 당신 앞에서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강한 모습으로 앞에 있지만, 뒤에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그대들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바로 보이지 않는 눈물이다.

2006년, 내가 스물넷이었고 가을날이었다. 그때부터 또 다시 가을날이 돌아온 2013년 지금까지 대상자들을 만나오며 어떤 날엔 도망치고 싶기도 했고, 나에게서는 실제 모든 걸 내려놓았던 시기도 있었으며, 이 모든 기간을 통 틀어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많은 눈물이 났다. 그런데 이 눈물은 힘들거나 슬퍼서만 흘리는 눈물은 절대 아니다. 내가 연계한 치료비로 아이가 수술을 잘 마쳤을 때 느꼈던 가슴 벅찬 설렘과 기쁨이며, 상담해오던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기도 하고, 아이의 어머니가 내 손에 쥐어준 검은 비닐 속 따끈한 호떡에서 피어오르던 잔잔한 감동이다.

2007년으로 돌아가 본다. 참으로 귀여운 말투와 외모가 기억에 남는 남자 아이가 있다. 당시 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부자가정이었고 아빠가 생계를 위해 배를 타고 일하러 가면 집에 아이만 홀로 남았다. 아이는 물리적으로 방임되었고 불안한 정서 때문에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심리적 문제를 보였으며 나는 아이를 대상으로 소아신경정신과 통원치료를 실시했다. 내가 기억나는 그 날은 아이를 데리고 통원치료를 다녀오던 날이었다. 나는 아이를 기관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

하고 있었다. 우리 기관은 8개시·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이 필수품이다. 더군다나 나와 같은 방향치 에게는 더욱 그러했고 지금이야 개인용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적이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네비게이션 사용은 기본옵션이지만, 불과 몇 년 전인 그때만 하더라도 차량용 네비게이션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었다. 초등학생이었던 그 아이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갑자기 네비게이션을 가리키며 호기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나는 부연설명을 덧붙여 대답했다.

“응, 이건 네비게이션이라는 건데, 길을 잘 찾도록 도와주는 기계야.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어.”

그런데 어디든 찾아 갈 수 있다는 나의 단순한 대답에 아이가 한 말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울려온다. 오물거리는 작은 입으로 이렇게 내게 말했다.

“우와! 그러면 저도 빨리 돈 벌어서 이거 살래요. 엄마한테 가는 길을 찾아 달라고 할 거예요.”

순수한 어린마음을 내가 다 알지 못했구나. 얼마나 그리울까. 바다에 나간 아빠를 홀로 기다리며,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엄마를 기다리며 얼마나 그리울까. 아이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2010년 결국 도망치고 말았다.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 휴직의 길을 택했고 해외 어학연수를 떠났다.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는 당시 내가 너무 소진됐던 탓이고 내가 정성과 노력을 투여했는데도 대상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며 또한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나를 너무도 눈물짓게 만들었던 아이들이 있다. 다섯 남매였다. 신체·정서·방임 모든 유형이 복합된 사례였고 오랜 기간 심각한 방임에 놓여 아이들 스스로 방임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왜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던 탓에 중학교 3학년이어야 할 나이에 학교는 다니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한글을 쓰고 읽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도움을 주지 못해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어쩔 수 없이 개입 중간에 다른

상담원에게 사례를 인수인계를 한 뒤 아이들에게도 담당 상담원 바뀌게 됨을 설명했고 나는 어학연수를 떠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일하며 당직 휴대폰 벨소리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나는 휴직기간동안 모든 통신기는 차단 시켰다. 유일한 소통의 수단은 전자우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반가운 이메일을 받았는데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섯 남매 아이들 중 셋째였다. 한글도 잘 모르는 데 영어로 된 나의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찾아 내용을 쓰고 메일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은 기특하게도 이랬다.

‘선생님 진지 때문에 힘드시지요?’

진지 때문에 힘드냐고 물어오다니, 높임말을 제대로 배웠다며 나는 홀로 중얼거렸고 가슴 벅찬 마음에 찡긋 눈물을 흘리고는 이 아이들이 넓은 세상에서 큰 꿈을 품고 살아가도록 내 소망을 정성껏 담아 답을 보냈다.

‘선생님은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나의 이 답이 웃지 못 할 동문서답이었다는 것은 머지않아 알게 되었다. 당시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 원전사고가 났던 그 시기였고 아이들은 뉴스에서 일본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연히 외국에 공부하러 간다는 내 생각이 났었나 보다. 한글에 미숙했던 아이는 ‘진진’이라는 단어를 ‘진지’라고 잘못 쓴 것이었다. 아무렴 어떠하겠는가. 머나먼 타국의 땅에 있는 나를 걱정해 주던 그 아이들의 눈물겨운 마음 덕분에 밥도 잘 먹고 지진 피해도 없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던 것 같다.

2012년은 에너지를 흠뻑 받고 돌아왔다.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면서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더 샘솟았다. 자신감이 아닌 자만감이었을까. 지금껏 흘렸던 그 어떤 눈물보다도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일이 곧 일어났다. 부설 공동생활가정에 보호하고 있던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여자아이의 엄마가 돌아가셨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아동은 가정 복귀를 간절히 원하기도 했고 가정 복귀 위해 준비 중 이던 시기기도 하여 안타까움이 더 컸다. 아이는 무엇이든 예쁘고 좋은 것이 생기면 엄마를 드린다며 챙겨두던 생각이 난다. 나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천진난만한 아이의 보호자는 ‘나’ 이기에 참으려 애를 썼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아이보다 더 많이 흐르던 내 눈물을 멈추기 힘들었다.

다행히도 아이의 회복은 빨랐다. 또 다른 부모였던 아이의 아빠의 노력으로 결국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이의 아빠는 투박한데 참 진솔한 사람이다. 천성적으로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상담원인 나와 좋은 이야기만 오갔던 것은 아니다.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있는 아빠에게 아동을 양육할 준비를 요청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 준비 과정으로 기관에서 개최하는 가족캠프에 그를 초청했다.

캠프는 올챙이잡기와 수목원 산책, 장소 이동 미션 수행 등 활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다. 물론 참석 이전에 준비물과 복장 등 모든 것을 설명 드렸다. 그런데 난 아이의 아빠를 보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흰 와이셔츠에 양복을 위아래 맞춰 입고 오신 것이다. 더 놀란 것은 아이의 아빠가 갑자기 내게 흠이 묻은 검은 봉지를 성큼 내밀었다.

“피부에 이게 좋아요. 많으니까 잡수시고 붙이시고 하세요.”

펼쳐보니 검은 봉지 안에는 오이가 한 가득 담겨 있었다. 아이의 아빠는 캠프에 참석하고자 다른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해 왔다. 그런데 버스 터미널 앞에 더운 날 나이 많은 할머니께서 오이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 그 오이를 모두 사서는 딸아이의 담당인 내게 안긴 것이었다. 오이를 팔고 있는 노파를 안쓰러워하고 또 담당 상담원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내게 그대로 전해졌다. 아이에게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캠프 장소에 양복을 입고 온 그 순수한 모습을 보고나니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아빠가 잘 채워 주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최근에도 안부 확인을 위해 아이와 통화를 했다.

“아빠도, 할머니도 잘 계시고요, 삼촌은 삼촌친구랑 강아지를 잡아먹었어요.”

개울과 밭이 근처에 펼쳐진 아빠 집으로 돌아가 시골소녀가 다 된 아이는 키우던 강아지의 슬픈 소식을 내게 전하였지만 여전히 천진난만한 목소리 뒤로 ‘허허허’ 웃음만 짓고 있을 아이의 아빠 모습까지 떠올랐다.

눈물을 쏟아내면 정화된 마음속에 가득 채울 자리가 생긴다. 뒤돌아보면 콧등이 시큰시큰해지고 마음이 울먹울먹 거려질 때가 많았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영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 대상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인생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남몰래 눈물을 쏟아내고 우리 아이들과 그 가족을 품을 자리를 만든

다. 부모는 들어주고 공감해줄 사람이 간절했기에 나를 향해 세상에 서러움을 한껏 토로한다. 그러면 부모에게도 이제 빈자리가 생겼다. 그 빈자리는 아이들로 채워질 것이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은 아이들은 내게 감동의 눈물을 다시 선물로 줄 테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눈물나도록 감사한 일이다.

## 다시 쓰는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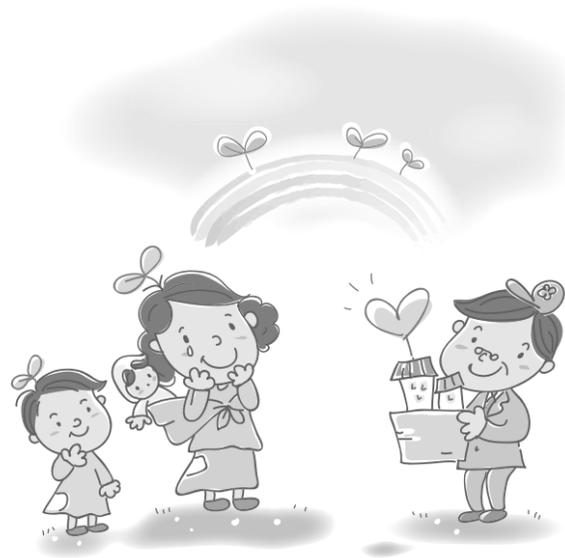
### 피해아동

'상담' .... 생각만 해도 가기 싫던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곳이든 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이게만 바라보던 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곳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처음 OO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했던 저는 '이곳' 도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저를 바꿔놓았던 곳은 없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저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던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저 자신' 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당시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타인의 도움' 만을 바라며 제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빼놓아지겠지만 보이던 세상. 그래서인지 방문했던 곳에 선생님들이 웃으며 건네주시던 인사는 저에게 가식적인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가식' .... 저에겐 매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찾아온 '이상'.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조차도 쉬는 게 힘들었고 조금만 있어도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며 죄 지은 사람처럼 움츠러들게 되니.... 옆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요? 심지어는 상대방의 눈을 3초 이상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 들이 '문제' 이고 '약' 이란 생각을 하며 피해의식 속에 젖어 살고 있었죠. 이것이 초기의 '서희망(가명)' 입니다.

제가 OO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가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도 두 번에서 저의 귀찮음으로 인해 줄인 것이었습니다. 가서 하는 것은 미술 치료. 선생님과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 이었습니



다. 무척이나 지루하기만 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로 하는 건 없었지만 왜 인지 시간낭비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어느 날 부터는 내가 꼭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OO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는 것에 화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중에는 피병을 몇 번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질려만 가던 프로그램. 그런데 언제부터 일까요? 선생님께 사정이 생기시거나 휴일이 겹쳐서 상담을 못 가게 되면 제가 다 서운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이어폰을 손에 꼭 쥐 채 걸어가던 길은 지금도 잊혀 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무리지어 와도 길을 돌아서 가지 않게 되었거든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고 대인 기피증까지 있던 저한테 작은 변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께서 항상 안부 인사를 물어봐 주시고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던 '서희망'의 얘기. 간단한 안부 인사나 수다를 나눌 존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봤자 텅 빈 마음속 또 하나의 저뿐. 지루하기만 했던 미술치료선생님이 인사차 물어주시는 안부인사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리웠던 것은 제가 많이 외로워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요, 그저 외롭기 때문에 선생님을 받아들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마음속에 노크를 해주셨기에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억지로 열려고만 하셨다면 제가 OO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다니고 있었을까요?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한 걸음씩 다가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걸으로는 선생님의 질문에 딱딱하게 대답하고 고개 짓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 후 부터는 꾸준히 상담을 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붙어갔으며 몸 안에서 힘이 생겨가게 됐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상담을 하려고 OO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갔습니다. 상담을 다니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른밖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이 대라고 해봤자 어린이 정도? 그런데 딱 봐도 학생으로 보이는 세련된 언니가 대기실 소파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때는 집과 상담하는 곳만 다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겨 있었기에 어린 여자학생은 단숨에 저의 호기심 꽃이 피어오르게 하였습니다.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들었지만 먼저 말을 걸 정도까지의 용기는 없었기에 조용히 옆 소파에 앉아 힐끔 힐끔 눈짓으로 보는 것이 다였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담당 선생님이 오셨을 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니도 저와 같은 선생님의 담당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서

로 자기소개를 하였고, 그 언니가 17살이며 이름은 '김미소(가명)' 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소언니와 잠깐이지만 얘기를 해봤을 때 언니는 단숨에 저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향해 발돋움을 하는 사람. 실패가 노랑지 않은 사람. 기분 좋은 만남에 시간이 되어 미술치료실로 들어가야 할 때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 받을 땀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와 헤어진 것이 아쉬워 시무룩해져 있을 때 선생님께서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미소언니와 미술치료를 같이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 이었습니다. 들었을 때 좋긴 했지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기에 미루려던 찰나, 선생님이 뭐가 걱정이나고 물으셨고 저는 언니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는 제 내면 안에 있는 두려운 감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귀찮아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전보다는 도망가는 쪽을 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고 미소언니도 좋다고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본 결과 저는 미소언니와 함께 미술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저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늘어난 미술치료는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며 집중하다 보니 서로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만 하는 치료였다면... 말 재주가 없는 저에게는 아무리 친해지고 싶은 언니와 한 공간에 있다 하여도 1분 1초가 지옥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며 각자의 개성을 입혀 꾸미고 작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듯 더 작품에 집중한다 생각했습니다.

문득 즐거웠던 그 날 오후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말. 아직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두려웠던 아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요.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을 했을 때 혼 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니가 괜찮으면 되는 거야.”

이 말 덕분에 저는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웃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미소들.

비록 지금은 함께하는 미술치료 작업이 끝났기에 언니를 볼 수 없지만 언제나 당신은 저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미술 치료가 끝나갈 때쯤은 변화 된 제 자신에 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제 또래 친구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갈 학교가 기회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미래를 위해 집과 상담기관 만이 아닌 더 큰 세상을 위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게 된 첫째 날은 갓 입학하게 된 학교의 들어가는 설레임 따위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떨렸습니다. 애써 감정을 표현해 보자면 전학생정도? 친해질 만큼 친해지고 무르익을 만큼 익은 사람들의 사이에 과연 제가 낄 자리는 있을지.... 불안감에 걱정 80%와 기대 20%를 안은 채 학교로 향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직 학교에 온 학생은 없었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은 후 미리 챙겨온 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시계침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조용한 교실... 비록 평범한 학교와는 다른 구조였지만 그리웠던 친구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감상에 빠져있을 때 쯤 시끌벅적한 소리가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학교에 다니는 언니들,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던 저는 점점 가까워지는 언니들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선생님께 인사하며 들어오던 한 언니는 저를 보고 멈추더니 먼저 인사를 걸어주셨습니다. 잠깐 멍 때리다가 급세 정신을 차리고 저도 반가이 언니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마음에 날아가듯 기뻐진 저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욕이 대화에 박혀버린 '손OO' 언니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도 아니고 정신없이 욕하고 시끄럽게 수다스러운 언니는 저와 정 반대의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감정 표현을 잘했었는데 겁쟁이가 되어버린 것인지 하고 싶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그 언니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은 충동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나마 꾸준히 해오던 미술치료에서 선생님이 '니가 그곳에서 찾고 싶은 게 뭐니?'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다시 학교에 입학할 당시의 목적을 생각해내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용기를 가지고 언니에게 언행이 거칠어 들을 때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하여 더 이상 언니는 저에게 욕을 섞은 말은 하지 않았습다. 콧방귀를 뀌며 비웃을 줄 알았던 저의 생각이 완전히 빛나가자 당황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언니와 대화하여 말이 통하였고 언니가 그것을 신경써주고 들어준 점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학교에서 야외로 수업을 간다 했을 때는 귀찮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가서 뭘 하자는 거냐며 투덜거리기 바빴던 저는 그냥 차에 누워 낮잠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차가 멈춘 느낌에 눈을 떠보니 도착한 곳은 공원이었는데 와-라고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멋진 풍경과 맑은 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은 가을이 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색깔로 물들어있는 단풍들과 나뭇잎들은 제가 봐왔던 가

을 중 최고라 손꼽을 수도 있었습니다. 풍경에 감탄하고 있는 사이 학교 사람들은 돛자리를 펴고 삶아온 계란을 까먹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법 익숙해진 얼굴들에 저도 사이에 끼 달걀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 숨을 쉬는 느낌. 간식시간이 끝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였습니다. 경찰과 도둑이나 술래잡기 등 여러 명이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중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술래잡기였습니다. 목이 마르면 사이dana 물 등을 마시고 서로에게 잡고 잡히며 하하 호호 웃었던 그때. 아름다운 가을 햇살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는 듯 세차게 뛰는 심장...

바람이 불어옵니다. 머리카락을 흐트러 놓으며 목을 간질이는 바람.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살고 싶게 만드는 유혹은  
그냥 세상을 떠나기엔 너무 아깝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가요?

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더 이상 죽고 싶단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들지 않을 거구요. 제가 이렇게 변화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OO아동보호전문기관....감사합니다.



# 나는 너의 그림자 되어 한 송이 꽃을 피우리라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철호 상담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입니다”

“네? 아동보호소요?”, “아동센터요?”

“아니요. 아동학대 관련 사업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아동보호센터요?”

2010년 1월 1일자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현재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4년 째 담당하면서 여전히 일반인들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명칭을 각인시키는 작업은 어렵게 느껴진다.

매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평균 200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장조사 시 2인 1조로 출장을 나가야 되는 것을 계산하면 연 평균 100건 씩 총 4년 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났던 것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발령을 받고 맡았던 내 생애 첫 사례 아동, 집도 싫고 보호시설도 싫다며 새벽1시까지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중학생,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내 앞에서 오열하는 열연을 펼치며 기관을 이용하려다가 실패하자 나에게 욕설을 퍼붓던 아이의 아빠, 길거리에서 8세 된 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현장조사 때 나에게 ‘결혼은 했냐’, ‘나중에 자식 한번 키워보라’ 며 영어로 상담했던 캐나다인 아빠, 4남매의 의식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술과 부부싸움을 일삼아 어렵게 4남매를 격리보호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소식을 알렸던 보호자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들은 획일화되지 않고 매우 다양했다. 그래서 더 어려웠다.

만나는 대상자들마다 고향을 지르는 것은 기본이고, 욕설과 폭언, 물건을 던지며 위협당하면서도

10명 중 1~2명의 아이들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먼저 안부를 물어주며 스승의 날 때 편지를 전해주는 아이들이 있어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같다.

나는 물론 취직을 하면 취약계층에게 현금 및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루하루를 보람된 일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사회복지학도였으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는 엄연한 사회복지사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면서 취직 전 부풀었던 기대와 달리 초기에는 하루하루 학대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학대를 가하는 보호자들과 대면하면서 ‘내가 과연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다.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를 통해 구할 수 있었는데 쉽게 생각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경찰 및 사법부에서 개입했을 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했을 때 결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찰 및 사법부는 학대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전문적인 수사를 토대로 그에 합당한 형사 처벌을 내리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목적 수사가 아닌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기법을 통한 조사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및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치료까지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례들 중 아직도 나에게 이 사례만큼 첫 만남이 강렬했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

“세계 시민 여러분. 저 사탄의 자식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날의 기억은 생생하다. 위의 말은 피해아동의 친모, 즉 지금부터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사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초기 현장조사 당시 들었던 첫 마디였다.

2010년 7월로 기억한다. 피해아동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로부터 아동이 3월 말부터 현재까지 결석을 하고 있고, 가정방문을 시도했을 때 아동의 친모로부터 빗자루 세례를 받으며 쫓겨나 그 뒤부터는 가정방문조차 무서워 학교 측에서도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신고자인 담임교사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친모가 아동의 책가방을 찢거나 교과서를 마당 앞에서 불로 태워버리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라며 담당 상담원에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직원 몇 명과 동행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신고접수 후 72시간 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서, 또한 입사 첫 해... 그것도 6개월도 채 경험이 있지 않은 본 상담원으로서의 그야말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자체사례회의를 통해 사례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선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예상 진행 과정과 피해아동의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선부른 가정방문 보다는 주변인 조사를 통해 꼼꼼히 가족 구성원의 정보 파악과 평소 아동 친모의 행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변인들의 현장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관할 동 주민센터와 시청 관할부서에 연락하여 수급세대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가정인지 파악하기로 하였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한 가지 여쭙볼게 있어서요, 혹시 김태희 씨(가명)...”

“아... 그분이요?”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상담원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피해아동의 친모 이름만 듣고도 가정상황과 학대행위자의 특성, 가족 구성원 등 더 이상 주변인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은 이렇다.

피해아동 가족은 부모자녀 세대이고, 친부는 일용직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주간에 만나기 어렵지만 날씨가 갠 날이나 저녁 늦은 시간 외에는 만나기 어려우며, 친모는 무직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1남1녀)과 외출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부터 다이어리에 주민센터 담당자의 말을 메모하는 나의 손은 실 틈이 없었다.

또한 아동 가정은 원래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였으나 친부가 출퇴근용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으로 수급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아동들은 각각 8세 남아와 6세 여아이며, 친부의 형제들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 왕래는 끊긴지 오래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상담원이 가정방문하는데 가장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학대행위자의 증세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2시~3시 경이 되면 2층 옥상으로 올라가 대형 스피커에 마이크를 연결하여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주변 이웃들은 피해아동 가족들을 강제로 이사 보내달라는 민원부터 파출소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그야말로 요주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지역사회 내에서는 반쯤 포기한 상태였다.

기왕 주민센터 방문하였으니 준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요청 공문으로 아동 가정의 세대원을 파악하였고, 또 하나의 의문점을 안게 되었다. 실제 거주하는 집에는 피해아동 2명과 친부모, 4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맞지만 친모의 자매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주민센터 담당자 또한 의문의 여성 2명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하였으나 어쨌든 주변인 조사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친모가 매일 오후 2시~3시 경 소란을 일으킨다는 내용을 기억하여 곧바로 집으로 향하였고, 친모에게 접근하기 보다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차 안에서 지켜보기로 하였다.

한 참을 기다려도 친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맞은 편에 있는 이웃에게 아동 가정에 대해 이야기 들었다. 70대 여성의 이웃은 우선 인상부터 찌푸렸고, 상담원의 손을 꼭 잡고 친모뿐만 아니라 아동 가족 모두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소연하기 시작하였다. 친부는 대략 저녁 8시 경 귀가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관할 파출소 직원과 함께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슬비가 내리는 그날 저녁, 주택가의 저녁은 희미한 가로등불과 아동 집의 거실 등불만 켜져 있는 상태로 매우 어두웠으며, 나에게는 결전의 순간이었고, 함께 동행한 여 상담원도 잔뜩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아동 가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파출소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위험한 상황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였고, 대문 앞에 서서 가만히 집 안 상황을 엿들었다. 잠깐 엿들은 바로는 어느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늦은 저녁식사를 하는 것 같았다. 큰 소리로 친모를 불렀고, 순간 집 안에서는 왁자지껄하던 목소리가 침묵으로 변했다. 문을 열어달라는 상담원과 경찰의 목소리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상담원이 문고리를 잡고 세계 흔들자 대문은 힘없이 열렸다. 경찰들이 함께 뒤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행한 여 상담원에게는 동영상 촬영을 요청하면서 마당까지 진입하여 친모와 피해아동들의 이름을 불렀다. 이 때 중성적인 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환아(가명), 불 꺼라! 지금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나 거실 문이 열렸고, 친모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으나 어둠속에서 모습을 먼저 보인 것은 왜소한 체구의 친부였다. 친부는 친모를 향해 잠시 안정시키는 말을 하고 담당 상담원과 경찰들과 대화를 위해 대문 밖으로 나왔다.

식사하던 중 깜짝 놀란 여자아동은 담당 상담원과 친부의 대화 중 조용히 다가와 친부의 손을 잡은 채 동그랗고 쌍꺼풀 짙은 눈으로 상담원을 쳐다보았고, 남자아동은 집 안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문 안 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친모는 담당 상담원보다도 체구가 큰 편이었다. 친모는 큰 소리로 경찰과 상담원을 비난하며 이웃주민들에게 또 다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사장에서 착용하는 보호헬멧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더군다나 기력이 없는 친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친부에 따르면 아동부모는 기독교 찬양 선교 단체에서 만나 연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둘째인 여자아동을 출산하고부터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다고 한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친모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가족들은 물론 이웃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교류하고 있는 주변인들은 없고, 사실 2010년 초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지속하였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면서 현재

아동모의 뱃 속에는 쌍둥이 자녀가 8개월 쯤 있고,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입원치료를 실시했던 병원 측에서는 임신 중인 아동모에게 약물치료 등 의료적 개입이 어려우므로 퇴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약물치료가 끊기게 되자 자연스럽게 정신분열증세가 다시 표출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 친모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하여 방 안 벽에 빨간색으로 성경 구절을 기록한다고 했다. 상담원은 불현 듯 생각난 친모의 자매들로 추정되는 의문의 여성 2명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친모가 수년 전 아동들의 외조모를 둔기로 내리치는 사건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2명의 아동이모들이 더 이상 친모와 엮이는 것이 싫어 외조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 신고접수 받은 두 아이 말고도 2개월 후에 만나게 될 예비 피해아동이 있다니...’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이러한 사정으로 친부로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담당 상담원에게 하소연 하였다. 그러나 친부는 무언가 도움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고, 친모의 입원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 소기의 성과를 보았다. 여자아동에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친부 뒤에 숨어 전혀 말을 하지 않았으나 친부의 설명에 따르면 친모가 정신분열증세는 있으나 가정 내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는 부족하나마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에 일단 안심이 되었다.



아동집 마당



현장조사 당시 상담원을 경계하는 친모

현장조사 후 자체사례회의와 지역사회 각 기관들(시청, 교육기관, 정신보건센터, 친부)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현재 임신 중인 학대행위자의 정신과 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협약된 의료기관에도 자문을 구하였다. 결국 임신 중인 친모에게 약물치료를 할 경우 태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원과 약물치료는 출산 전까지 개입하기 어렵지만 친부가 수시로 기관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될 경우 연락을 주는 임시조치를 출산 예정일까지 유지하

는 수 밖에 없었다.

친모가 출산을 하면 간단한 산후조리를 마치고 친부의 보호자 동의를 통한 입원조치를 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아동 2명은 본 기관에서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친모의 입원 기간은 최소 3개월, 최장 6개월로 정하고, 퇴원 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약물관리를 진행하며, 시청에서는 가족들의 수급권 혜택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다행히도 보호자인 친부가 기관들의 사례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서 사례 진행은 별 문제 없이 되었고, 8월 중순 경 친모가 산통을 겪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피해아동들은 본 기관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피해아동들은 본 기관 일시보호시설에서 차려주는 반찬들을 보며 낮설어 했다. 특히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흔히 슈퍼에서 구할 수 있는 후랑크 소시지를 보고 나에게 처음 먹어 본다며 웃어보이던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순간 울컥하기도 했다.

본 상담원은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새롭게 태어난 쌍둥이 동생들과 친부모, 피해아동들이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시키는 것에 열중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던 남자아동을 위해 해당 학교에 ‘피해아동 일시보호에 따른 출결사항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유예처리 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피해아동들에게 약 2개월 동안 일시보호시설 생활교사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기본적인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전혀 몸에 베어 있지 않은 아동들에게 생활계획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실천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심리 정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보호조치 전 심리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행히도 생활환경만 바뀌준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다. 또한 아동들의 건강검진 및 치과치료를 통해 그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아동들의 건강을 개선시켰고, 틈틈이 문화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활동 사진



그 사이 담당 상담원은 친모 면회와 담당 의사를 만났고, 친모는 출산 후유증과 정신과 약물치료로 인해 매우 힘들어 보였으나 담당 상담원에게 현장조사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생생히 기억한다며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부를 대신하여 아동모의 입원비용을 지원하였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근로능력상실평가서’를 시청에 제출하여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난장판이 되었던 아동 집은 지역사회 내 민간봉사단체 및 시청의 개입으로 도배,장판, 가구지원,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친부와 논의하여 아동들의 보호 기간을 약 1년으로 정하고, 시설 및 그룹홈 보다는 가정위탁 세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결론지었으며, 태어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녀들은 지자체에서 적절한 시설로 보호조치하였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친모는 담당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퇴원하였고, 시설 입소 중인 쌍둥이 자녀들을 원가정 복귀시켰으며, 가정위탁 보호 중인 피해아동들의 위탁종료 기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친모는 한결 편안해진 모습으로 담당 상담원을 맞이하였고, 감사 인사는 늘 잊지 않았다. 피해아동들의 위탁보호 기간이 종결될 즈음 하루는 친모가 나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꺼내 준 것은 취업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미용학원을 다녔던 친모가 자격증을 땀다며 자랑스럽게 펼쳐보였다.

활짝 웃는 친모의 얼굴을 보면서 나를 잔뜩 긴장시키던 첫 만남부터 약 1년 동안의 사례관리 진행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비로소 안심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이 사례는 2011년 전국 지자체 사례관리팀(현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실시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함께 사례관리를 진행했던 시청 관계자에게도 연락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사례관리 협력체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지금은 그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 본 상담원의 근무지가 옮겨지기도 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기개입 특성 상 언제까지 사례관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타 기관 의뢰(정신보건센터)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례를 계기로 도움을 받았던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학대행위자를 상대할 때 사례개입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한 훈련을 톡톡히 하였고, ‘과연 아동학대 업무를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본 상담원은 그 동안 나태해졌던 마음가짐이 이 글을 마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꺼이 새롭게 만날 아이들의 그림자가 되어 한 송이 꽃을 피우도록 도울 것을 다짐한다.

## 작은 추억들이 맺을 열매를 기대하며

경기도양아동보호전문기관  
자원봉사자 이창재

### ○ 첫 만남 - 추억의 시작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학습의욕이 낮고,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며 집중도가 낮습니다. 가정에서 보살핌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분노 조절이 잘 안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력은 월등히 높은 점이 있고, 학습 면에서 기본적인 해결능력은 있으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공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정보들이 제가 준이(가명)를 만나기 전에 받은 기본 정보들이었습니다. 준이 또래의 보통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준이가 하였을 때 그에 대해 교정이 필요한 행동이라고 선불리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경계하며, 최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준이와의 첫 만남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첫 만남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예의바르고 착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준이가 관심이 있는 과목은 자연과 생활이었고, 고대야생동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준이가 좋아하는 고대야생동물에 대해서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에게 소개해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줄 때 준이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준이의 고대야생동물 설명을 들은 후 같이 유부초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린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격려를 해주며, 어설픈게 직접 유부초밥을 만드는 것을 보고 준이도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준이처럼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부모님의 보살핌이 부족한 아이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하도록 격려를 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결과 성취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도전하는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이는 아버지께서는 밤에 출근하셔서 아침에 퇴근하시고, 낮 시간동안에는 주무시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집에서 진행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준이의 교육과 양육은 어머니께서 도맡아서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출근을 하셔서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준이는 학교 후에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보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준이와 친해지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가서 놀이기구를 이용해 놀았습니다. 준이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이 났습니다. 같이 땀 흘리며 함께 노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게 더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행동 특징 때문에 살짝 긴장하긴 했지만, 첫 만남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예의바른 어린이였습니다. 제가 고대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준이의 설명을 잘 들어 주니 준이가 아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 쌓여가는 추억

두 번째 만남에서는 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서점을 가기로 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을 때 준이가 오늘 서점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이가 책 많은 곳을 좋아해서 서점에 한번 가면 2시간 정도 있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느라 바쁜 부모님께서도 오히려 서점에 자주 데려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문화생활이라는 주제로 영화관에 가서 애니메이션도 보려고 하였지만 준이는 영화보다 서점가서 고대야생동물 관련 책을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의 9살 어린이들이 서점에 가면 얼마가지 않아 지루함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준이는 고대야생동물이라는 주제에 관련한 책을 모두 쌓아놓고 이 책, 저 책 비교하면 읽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열정을 가졌지만 제 어렸을 적과 비교하였을 때 “나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좋아했던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집중해서 책을 읽고, 메모지에 정리하는 준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앞으로의 준이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점을 가거나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준이는 부모님께서 바쁘시다보니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준이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준이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한 노트에 준이의 미래 모습을 그

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룡 · 괴물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준이는 공룡과 괴물을 연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 준이의 모습을 그려보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공룡, 괴물 그림만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활동과 자신 없는 활동을 할 때의 태도의 격차가 아주 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수학 교재를 활용하여 초등2-2 덧셈 문제를 40문제 풀었습니다. 이 때 준이와의 멘토링에 있어서 첫 번째 어려움을 맞닥뜨렸습니다. 준이는 특히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활동을 하게 되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책상을 치거나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씩씩거렸습니다. 준이를 달래면서 그래도 수학문제를 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달래기만 하자 자신의 분노를 더 적극적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오히려 엄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분이 조금 삭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이가 자신이 싫어하는 직면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분노를 자신이 잘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또 화가 나면 2살 형인 혁이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활동을 할 때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준이는 머리를 벽에 부딪치거나 머리를 쥐어뜯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데 있어 분노조절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에 준이가 저번 활동에서 화를 냈던 일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행동이지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혹시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사과를 하는 측면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준이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경기고양야동보호전문기관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함께 키자니아(어린이 직업체험관)에 가서 준이와 함께 여러 가지 직업체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서점에 가서 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드는 북 마스터 체험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준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꾸며서 직접 맛을 보는 직업 체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관 내에서만 사용되는 지폐로 체험관 내 백화점에 가서 한정된 예산으로 직접 물건을 사보는 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직 어려서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준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이는 방과 후에 학교 내 도서관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룡과 고대야생동물 관련 책을 자주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준이는 또래에 비해 단어 선택이 다양하며,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고, 이해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부모님이나 앞으로 준이가 만날 학교 선생님, 멘토링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준이의 역량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작은 추억들이 맺을 열매를 기대하며

준이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한번 밖에 남지 않아 준이의 특별한 행동 특성인 분노조절 발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그 동안 멘토링을 하면서 준이가 분노조절에 실패했던 수학 문제 풀기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준이의 감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보였던 숨을 헐떡일 정도로 분노를 표출한다거나 머리를 벽에 부딪친다거나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눈물을 흘리는 등의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선생님에게 울먹이면서 “집중이 잘 안돼서 못 풀겠어요, 선생님.,”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될까요?”라고 말하는 등 분노조절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고 준이의 분노조절이 잘된다고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조절은 강압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신뢰와 사랑을 통해 아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주간의 짧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이와의 7주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는 어느새 준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소중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준이와의 7주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이의 여러 행동에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준이와 함께 보냈던 시간, 나누었던 대화들이 이따금씩 준이에게 추억으로 남겨진다면 분명 그 추억은 준이의 앞으로의 인생에 작은 영양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도 그러한 영양분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헤쳐 왔기 때문입니다. 준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작으나마 좋은 추억과 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진아 학교가자~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형민 상담원

유진(여, 가명)이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다. 유진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수입 변동이 생긴 것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든 것에 격분하였고 그 길로 해당 주민센터와 구청에 찾아가 따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조정이 안 된다는 답변 뿐, 이에 화가 난 유진부는 그날부터 유진과 함께 살길을 찾겠노라 하며 유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 시작했다. 유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외에는 유진부가 유진이를 지극히 챙겨주고 있어 오직 교육적방임만이 가장 큰 문제였다.

현장조사를 겸한 첫 번째 방문, 방문 전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진부가 수급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난 상태로 어떠한 설명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라 첫 방문은 유진이를 학교에 보내자는 설득보다는 유진부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리라 생각했다.

유진부의 첫인상은 강했고 고집이 세보였다. 설득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먼저 친밀감을 형성하기로 했다. 방문목적을 설명하며 목이 마르니 마실 것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유진부가 버너에 물을 끓여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주었다. 상담원들은 유진부의 커피 타는 습씨가 뛰어난 것을 강조하면서 조금 더 좋아진 분위기에서 상담을 이어 갔다.

유진부는 일용직근로를 하며 아동을 양육해 왔는데 그 수입이 일정치 않아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정 후 수급자 선정이 되었는데 몇 년간은 수급비의 큰 변동이 없이 잘 지내다가 최근 몇 달간의 소득 변동으로 인해 수급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에 크게 화가 나고 공무원들과 말도 통하지 않아 유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유진부는 현재까지 유진이를 홀로 지극정성을 다하여 키워왔는데 주변에서 더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아무런 통보도 없이 수급비를 조정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

고 주민센터에 찾아가 지원받는 쌀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만일, 이를 어기고 집에 쌀이 배달된다면 구청과 주민센터에 찾아가 쌀을 뜯어 바닥에 부을 것이라 하였다. 이후 유진부의 흥분된 표현과 막말을 대략 2시간여 가량 들은 후 그날은 복귀를 하였고 유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유진부와의 긴긴 마라톤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방문, 유진이의 집에 방문하니 유진부는 TV를 시청하면서 화투를 하고 있었고 유진이는 오전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다. 설득을 시작하기 전, 유진부에게 일전에 타준 커피 맛을 잊을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손수 타줄 것을 부탁했고 유진부는 흔쾌히 준비해 주었다. 유진부에게 상담원이 파악해보니 수급비가 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득하자 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유진부는 모든 지원이 필요 없고 유진이를 데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유진이와 함께 일하며 생계를 꾸려 나갈 것이고 그곳에서도 유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유진이 아직 어린테 무슨 일을 시킬 것이냐 물으니 시골의 냇가를 돌아다니며 다슬기를 주워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생활 할 것이라 한다. 순간 어이가 없어 대답해 줄 말이 궁색했지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니 '그러면 유진이의 의사는 물어본 것이냐, 유진이는 무슨 고생이냐' 하니 유진이도 부와 함께 라면 그러한 생활을 감수할 것이라 했다. 이후 전과 같은 언쟁이 계속되었고 유진부는 끝끝내 유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 유진부의 완강한 태도에 다음을 기약하며 집을 나섰다. 그래도 얻은 수확이라면 유진이 학교에는 등교하지 않고 있지만 예전부터 다녀왔던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이였다.

세 번째 방문,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유진부를 다시 한 번 설득하기 위해 유진이의 집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집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순간 덜컹하는 마음이 들었다. 혹시나 유진부가 일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모든 짐을 챙겨서 지방으로 내려간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에 서둘러 유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르르~, 뚜르르~', 잠시 후 유진이의 부가 전화를 받았다.

안도감과 함께 강하게 이야기 하면 화가 난 부가 전화를 끊을 까 염려되어 지금 어디시냐고 아주 상냥히 여쭙었다. 유진부는 최근에 유진이의 등교문제로 여러 기관에서 찾아와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바람을 쐬러 유진이와 함께 S시에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한다. 부에게 유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도착하면 꼭 전화 줄 것을 당부했다.

네 번째 방문, 유진부녀가 S시에서 T시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날, 이번에는 유진이의 부를 설득하여 어떻게든 유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리라 다짐 후 방문하였다. 오전 11시쯤 방문하여 유진부녀가 S시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던 중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자 자고 있던 유진이를 깨워서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유진이는 끝끝내 거부하였고 어쩔 수 없이 유진부와 상담원들만 점심을 하러 갔다. 식사 자리에서는 유진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유진이의 학교 이야기는 하지 않고 좀 더 친근함을 쌓기 위해 유진부가 살아왔던 인생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 후 유진이의 점심까지 포장 주문한 다음 유진이의 집으로 돌아가 유진부에게 일전에 타주었던 커피가 맛있으니 다시 한 번 부탁한 다 하였고 유진부는 기꺼이 상담원들의 커피를 손수 타주었다.

커피를 마시며 유진부의 어려운 점은 알겠으나 유진이는 그에 관련하여 잘못이 없으니 유진부가 관계기관들을 원망하고 화를 내더라도 유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에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비록 유진부가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 다음에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다.

다섯 번째 방문, 출근과 동시에 유진이가 학교에 등교하였는지에 대해 학교에 연락하였다. 등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유진이의 집에 방문하였다.

유진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유진이는 아직 자고 있던 중으로 이번에는 반쯤 강제로 유진부의 말을 듣지 않고 유진이를 깨운 후 씻겨 등교준비를 하였다. 와중에 친부가 유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였으나, 강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는 것 같아 유진이의 등교준비를 밀어붙였다. 유진부의 잔소리를 뒤로 하며 유진이와 함께 학교에 등교하면서 유진에게 학교에 등교하면 친구들도 있고 집에서만 지내면 심심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이야기로 유진이를 설득하였다.

유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교실 앞까지 도착하였고 마침 체육시간이라 같은 반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에 있었고 담임선생님만 교실에 남아 있었다. 유진이의 담임선생님에게 앞으로 유진이가 꾸준히 등교할 수 있도록 유진이를 설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과연 내일은 유진부가 유진이를 등교시킬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했다.

여섯 번째 방문, 역시나 이번에도 유진부가 유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번에는 유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육복지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습생들이 동행하여 유진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집 앞에 도착 후 서로의 임무에 대해 작전을 짰다. 교육복지사와 상담원이 유진부를 설득하는 동안 실습생들이 유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힌 후 함께 학교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며칠만 반복하면 유

진이 스스로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부의 마음도 누그러지리라는 기대와 함께…….

집안에 들어서니 유진부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고 유진이는 잠은 깬 상태지만 씻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상담원과 교육복지사가 유진부를 설득하는 동안 실습생들이 유진이를 씻기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유진부는 유심히 그 모습을 관찰하다가 상담원이 말릴 새도 없이 유진이의 책가방을 빼앗더니 안에 든 내용물과 함께 가방을 갈가리 찢기 시작했다. 아차, 싶었다. ‘유진부의 자존심을 건드린 걸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 것인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유진부가 유진이의 책가방과 내용물을 모두 찢은 후 모두 얼이 빠져 있었고 적막감이 찾아왔다. 유진부의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것 같아 한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진 후 유진부에게 사과했다. 너무 유진부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노라고, 다음에 다시 올 테니 그 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돌아서는 상담원 일행의 등을 향해 유진부가 본인도 감정이 격해져 과한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다. 유진부에게 누구보다 놀란 유진이를 잘 달래줄 것을 당부하고 집을 나섰다.

일곱 번째 방문, 어느덧 유진이는 방학을 맞이했다. 이전 방문 당시, 유진부가 유진이의 가방을 찢으며 화를 낸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가야만 하기에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유진이의 집에 방문하였다.

유진부는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유진이는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고 새벽녘에야 잠들었다고 했다. 유진부에게 유진이가 방학하기 전에 본 기관에서 다른 아동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유진이 꼭 참여토록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유진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다. 유진부의 연락을 당부하고 집을 나섰다. ‘전보다 누그러진 것일까? 아니면 유진부의 심경이 변화된 것일까?’ 이전 보다 유진부의 태도가 힘이 없어 보였다.

고대하던 유진이의 등교, 유진이의 방학을 며칠 앞두고 본 기관에서 아동들을 위한 행사에 유진부가 유진이를 직접 데려다 주었다. 이날 유진이는 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전날 밤 유진부가 유진이에게 ‘학교에 가고 싶냐?’ 은근히 물었고 유진이는 ‘그리고 싶다’ 답했다고 한다. 유진이 느끼기에 부가 본 기관에서 찾아오지 말라는데도 찾아가며 유진부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말벗도 돼 준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한다. 말이 라도 고마웠고, 유진이가 꼭 다시 학교에 갔으면 했다. 며칠 후 유진이의 개학일이 있었고 기대한 바대로 유진이는 등교하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 지나서도 유진이는 꾸준히 등교를 하였고 유진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방문하러 전화하니, 유진부는 민망하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

유진이의 등교로 사례는 종결되었고, 사후관리 기간에도 유진이의 집에 종종 방문하였다. 여전히 유진부의 믹스커피는 달달하면서 맛있었다. 조금 뜨거운 게 흠이지만 맛은 최고다. 유진부는 더 이상 수급비가 감소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당시는 너무 화가 났지만 시일이 지나고 나니 다 잊을 수 있다고 한다. 지난 후에야 하는 말이지만 당시에 화가 났던 가장 큰 이유는 담당자들의 일방적이고 딱딱한 태도였다고 한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던 중 상담원들이 싫다는데도 매일 찾아와 유진부를 설득한 것이 고맙다고 한다.

규칙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듯이 태도 하나에 일이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어렵게 꼬이기도 한다. 그것을 일깨워준 유진이와 유진부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고 비록 아동학대행위자일지라도 진심어린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향후의 개입에서도 잊지 않고자 다짐한다.



## 2013 아동학대예방사업 우수사례집

---

- 인 쇄 일 : 2013년 12월
  - 발 행 일 : 2013년 12월
  - 편 집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김경희, 이지연, 전선율
  - 발 행 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